

6.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준비론 사상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15년의 도쿄 유학생들의 학창 생활은 어떠했을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선망한 도쿄 유학생들의 생활은 아침 일곱시를 알리는 패종시계 소리로 시작된다. 이층 사첩疊 반의 방에서 일어나면 자리옷을 벗고 아롱아롱한 긴 소매가 달린 옷을 갈아입는다. 하녀가 문을 열고 끓어오르며 아침 인사를 한 후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고 이불을 갠다. 학생들은 칫솔과 비누를 들고 세면대로 향한다.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와 몸단장을 하고 스미다 강隅田川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본다. 이윽고 하녀가 아침상을 가져온다. 된장국에 단무지 두서너 쪽으로 아침 요기를 한다. 여덟시쯤이면 책과 도시락을 꾸려 들고 교복과 교모에 구두를 신고 학교로 향한다. 길은 어느새 학생들로 가득 찬다. 수업이 시작되고, 세계의 온갖 지식이 흑판 위에서 전개된다. 학교가 파하면 산보를 한다. 도쿄의 어마어마한 거리며 밤 경치며 음악 소리며 가스등이며 전차·자동차의 물결에 넋을 잃는다. 한쪽에는 새로운 문명의 물결이 흐르고 다른 쪽에는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가 흐른다. 구세군의 노상 설교도 들려온다. 저녁을 먹은 뒤에 8시쯤이면 하숙방에서 복습을 하고 새로운 지식에 눈뜨기도 한다. 위즈워드의 시, 에머슨의 논문, 투르게네프의 소설 등에 빠져들기도 한다. 일요일에는 우에

노上野 히비야日比谷 공원이며 식물원, 동물원, 극장, 도서관 등에 몰려다니며 저녁때는 친구들의 하숙집을 드나든다. 공동 목욕탕의 체험도 특이한 것이며 신문, 잡지 등에 실린 세계의 새로운 유행과 지식은 너무도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어서 오히려 취사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⁹⁹⁾

이러한 기록은 춘원보다 한 살 아래이나 와세다 대학에서는 한 학년 위였던 현상윤의 도쿄 생활의 요약이다. 정주 출신이며, 평양 대성학교를 다닌 현상윤은 육당의 『청춘』에 「한의 일생」 등 단편을 써서 춘원과 나란히 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로 춘원보다 문필에 있어서는 한 세대 뒤지는 것이다. 도쿄 유학 체험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현상윤에 있어 이러한 정도의 도쿄 체험을 춘원은 1904년에 이미 겪었다. 십년의 차이는 그대로 한 세대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춘원의 두번째 도쿄 유학 체험은 어떠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가 쓴 장문의 글 「동경잡신東京雜信」에서 자세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 글은 일종의 새로운 기행문체의 개척이란 점에서 큰 비중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정」을 『매일신보』에 연재케 한 한 가지 동기를 낳았으며, 다시 「오도답파기五道踏破記」에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근대소설의 효시인 장편 「무정」과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의 관련은 무시되거나, 간단히 보아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가 도쿄를 세밀히 관찰한 「동경잡신」의 검토가 불가피하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매일신보』는 매일 투쟁지로 유명한 『대한매일신보』(1904년 7월 창간)의 후신이다. 영국인 배설(裴說, E. T. Bethel)이 양기탁과 더불어 창간한 것으로, 특히 영문판도 내었기에 외국에도 영향력이 있었다. 배일 사상으로 인해 『대한매일신보』의 인기가 높아지자 일본 통감부는 배설과 주필 양기탁에 탄압을 가해 배설을 추방하

99) 현상윤, 「동경 유학생 생활」, 『청춘』 제2호(1914. 11), 110~117쪽.

고 양기탁을 기소하였다. 1906년에 제정된 광무신문지법하에서도 투쟁을 계속한 이 민족지는 당시로서는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1909년 5월의 경우 약 6천 부)이었다.¹⁰⁰⁾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을 당하자 이 신문은 '대한' 자를 떼어버리고 총독부 기관지로 바뀌었다. 이후로 『매일신보』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언론 신문으로서 통치자의 기관지 노릇을 하기에 이른다(이것이 오늘날 『서울신문』의 전신이다).

1916년 당시 『매일신보』의 사장은 일본인 가토加藤였다. 그 기자 중에는 장편 「무정」의 유일한 실제 모델(기자 신우선)인 심천풍(沈天鳳, 友燮)이 있었다. 심천풍은 작가 심훈의 만형이며, 소설 「산중화山中花」의 작가이기도 했으며, 춘원의 기행문 「오도답파기」를 일역하여 『경성일보』에 실기도 했다.¹⁰¹⁾ 가토 사장과 편집국장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 또 선우일鮮于日, 이상협李相協 등과 춘원의 관계는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 춘원의 글이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로는 나를 끝까지 옹호하여주던 가토 사장”(「『무정』 등 전작품을 어語하다」, 521쪽)이라고 한 춘원 자신의 말로 미루어보면 춘원과 가토의 관계는 별로 깊지 않았던 것 같다. 춘원과 『매일신보』의 제삼대 사장 아베 요시이에阿部充家(호는 무불無佛)의 관계는 두루 아는 바와 같이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1918년 10월 춘원이 허영숙과 베이징으로 도피했을 때, 만주 및 베이징 총영사에 소개장을 써준 것도 아베였고 나중에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춘원을 소개한 것도 아베였다.¹⁰²⁾ 총독부는 『매일신보』를 언문판으로, 『경성일보』를 일어판으로 내어 함께 기관지로 삼았다. 『경성일보』는 이 무렵 2만 부 정도 발간되었고 『매일신보』는 2천 부 정도로 떨어졌던 것이다.¹⁰³⁾

100) 정진석鄭晉錫, 『일제하 한국 언론 투쟁사』(정음사, 1975), 219쪽.

101) 「『혁명가의 아내』와 모 가정」, 『이광수 전집』 10, 508쪽.

102) 김성식, 『일제하 한국 학생 독립 운동사』(정음사, 1974), 49쪽; 강동진, 『일제의 한국 침략 정책사』(한길사, 1980), 380쪽.

춘원이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관련을 가진 것은 기행문이
 자 논설적 성격을 띤 「대구에서」(1916. 9. 20~23)를 발표하면서부터
 이다. 1916년 9월이면 그가 와세다 대학 고등 예과를 마치고 대학부에
 입학할 무렵이다. 한편으로는 『학지광』에 다른 한편으로는 『청춘』에
 다 발표 무대를 둔 그는 한걸음 나아가 총독부 기관지에다 발표의 무
 대를 개척하였다. 이 사실은 춘원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였다. 1916년 7월 5일에 고등 예과를 졸업한 그는 일단 귀국했었
 다. 대학부 입학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그에게는 없었는데 고등 예과
 생 3천여 명 중 이등으로 졸업했기에 무시험 입학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천재다”라는 순진한 야망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에게는 『학지광』이 시시하게 보였음에 틀림없다. 신문관에 앉아
 『청춘』을 편집할 때 바라본 도쿄의 『학지광』은 제법 빛나보였거니와,
 그래서 「공화국의 멸망」이라는 논설을 기고하기까지 했지만, 이제 와
 서 보면 그것은 한갓 유학생계에서나 읽히는 것이어서 답답했던 것이
 다. 한편 『청춘』을 보자. 이것 역시 육당 중심의 동인지적 성격을 띤
 것이어서 민족적 경륜을 펴기에는 미흡하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한일
 합방이 된 지 벌써 육 년, 발표 기관도 다양해졌고, 사상도 교육의 보
 급도 성장하고 복잡해졌다. 춘원의 사상도 전보다는 많이 성장 변모하
 였다. 더구나 다시 독일하여 공부를 해보니, 1905, 6년 무렵 메이지 학
 원 시절의 도쿄의 사상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달라졌음을 그는 일 년
 동안에 체험한 것이다. 그에게는 어느 정도 나아갈 방향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학생계를 넘어서고, 육당적 동인지의 세계도 넘어서 자
 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발표 무대가 그에게는 필요했다. 그것이 당
 시로서는 가장 부수를 많이 찍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였다. 처음
 이 신문이 기관지로 바뀌자 부수가 줄었으나, 총독부 기관지답게 서서
 히 부수가 증가되었다. 언론 신문으로서의 거의 유일한 것인만큼 그럴

103) 정진석, 앞의 책, 220쪽.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이 유일한 언론 신문을 읽어야 했기에 『매일
 신보』는 거대한 기관으로 변모하였고 이 사정은 1920년의 『동아일
 보』, 『조선일보』 두 민간 신문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춘원은
 이 신문 지면이 필요했다. 그는 스스로 그만큼 큰 사상가요 인물이라
 고 판단한 것이다. 그의 나르시시즘은 그로 하여금 마침내 이 신문에
 「대구에서」를 쓰게 만들었다.

준비론 사상의 맹아 — 「대구에서」

「대구에서」는 과연 기행문인가. 그 형식은 기행문이다. “아침에 선
 생을 배별拜別하고 종일 비를 맞으며 대구에 도착하였나이다.”¹⁰⁴⁾ 이
 렇게 시작되는 이 글은 대구에 가는 길과 대구에 도착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기초로 하여 뒷사람에게 보고하는 편지 형식의 기행문이며,
 특히 편지 형식의 채택으로 말미암아 독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편지 형식을 감동적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재능은 춘원의 특출난 능력
 으로서 이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단편 「어린 벼에
 게」도 바로 이런 형식이어서 독특한 감응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단순한 기행문과는 성질이 다르다. 그가 대구
 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이 화제거리였다. 수십 명의 청
 년이 작당하여 강도짓을 했는데, 기실 이 청년들은 중류 이상의 상당한
 교육을 받은 자들이며, 일찍 대구친목회를 만들어 청년 운동을 펴던 자
 들이었다. 이런 청년들이 떼지어 대규모 강도짓을 한 점은 충격적인 사
 건이라 할 만했다. 춘원은 이 사건을 세 가지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
 하였다. 「대구에서」는 바로 식민지치하의 한국 청년들을 다스리는 방
 법을 총독부에 건의하고 제시하는 글인 것이다. 그러기에 편지 형식 중
 에서도 뒷사람에게 보고하는 ‘~하나이다’를 사용한 것이다.

104) 「대구에서」, 『이광수 전집』 9, 134쪽.

중게 말해 조선 청년의 허무주의 극복 방식, 나쁘게 말해 강도화해 가는 조선 청년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춘원은 첫째, 명예심을 회복시켜 줄 것을 들었다. 대구의 강도 사건에 관련된 청년들은 ‘합방 전에 교육을 받고, 이미 청년이 된 계층’이다. 이들의 심리는 정치열, 즉 애국 계몽 사상에 들떠 있는 지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명분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계층이다. 춘원 자신이 이 계층에 속함은 물론이다. “소생도 기억하거니와, 당시는 조선에서 저희 각성된 사회에는 정치열이 비등하였고 또 그 중심은 청년에 있었는지라”(『대구에서』, 135쪽)라는 지적이 이를 말해준다. 합방 후 이들 청년은 명분을 잃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다. 춘원은 여기서, 그들 청년이 뜻을 돌이켜 “신사회에 활동할 만한 실력을 길러 사회의 중추가 될 자격과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런 방향 전환이랄까, 새로운 자각 없이는 이미 식민지가 된 ‘새로운 사회’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는 논지이다. 그렇지 않으면 강도가 되거나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물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둘째, 할 일이 없는 사실과 관련된다는 점을 들었다. 철도 관계, 교육계 등엔 “그 대부분은 사무가 고상하고 복잡하여 아직 조선인을 사용키 불능하며 당국에서도 당분간 일본인만을 사용하거니와” 그렇지 않은 다소 하급의 기술직, 가령 은행·회사·상점의 사무원과 공장 기술자와 보통학교 교원에는 조선 청년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특히 이 두번째의 권유책은 뒤에 춘원이 아베 요시이에를 통해 총독에게 헌책한 이론의 원형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¹⁰⁵⁾

가령 대구 내의 재산가가 분발하여 유교육有教育한 청년 100인을 사용할 만한 사업을 일으켰다면, 대구 내의 유교육한 청년, 즉 차종此種 위험

105) 아베 요시이에阿部充家を 통해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헌책한 내용 일부에서 엿보이듯, 위험 사상을 지닌 조선 지식 청년의 구제책은 『대구에서』의 내용과 닮았다(강동진, 앞의 책, 381쪽 참조).

인물 될 만한 청년의 그의 전부에게 사업을 주게 될지니, 그러면 금번 20여 인도 그중에 들어 안분낙업安分樂業하는 양민이 될 뿐더러, 동시에 사회의 산업을 발전하는 훈공자가 될지라. 경성도 이러하고 평양도 이러한가 하나이다. 그러하거늘 이 사회의 대자본 되는 청년으로 하여금 반反하여 사회를 상해하는 죄인이 되게 하니, 사회 손실이 과연 얼마나 하나이까. 나는 이 20여 명 청년의 대범죄를 목도함에 수만 수십만 후래청년後來靑年의 위기가 안전에 방불한 듯하여 전율을 금치 못합니다.

—『대구에서』, 136쪽

이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조선의 교육받은 청년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거리 중 고상하고 복잡한 것은 일본인이 하고, 사무원이나 공장 품팔이 정도의 일거리면 조선 청년에겐 족하다는 것이다. 조선 독립은 먼 장래의 일이고, 우선 실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홍사단(동우회)의 준비론과 매우 흡사한 사상, 달리 말해 민족개량주의적 발상이 총독부 기관지를 통해 극명히, 만천하에 표명되었다.

셋째, “교육의 미비와 사회의 타락이라 하나이다”(강조—춘원)라고 춘원은 강조하였다. 첫째와 둘째는 이 셋째 방책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춘원 스스로에 의한 강조가 증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합방 전에 교육받은 조선 청년의 강도화·폭력화를 방지하는, 바로 그 합방 전에 교육받고 합방 전에 청년이 된 세대인 춘원이 지혜를 다하여 짜낸 방책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음 인용 속에 그 골자가 들어 있다.

교육의 미비와 사회의 타락이라 하나이다. 그네가 강도를 짐짓 한 목적은 2종에 불출不出할지니, 일은 소위 정치적 음모에 자資하려 함이요, 타일은 주색의 쾌락을 탐하려 함이요, 혹은 몽롱하게 차 2자를 결합한 것이나 우또는 전자의 명의를 빌어 후자를 탐하려 함일지라. 그러나 어차어피於此於彼에 이는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에 질서가 없음이니, 만일 저 20여

명으로 하여금 서양사 1권이나 국가학 1권은 말고, 1, 2년 동안 신문 잡지만 읽게 하였더라도 자기네 능력과 그만한 수단이 족하고 그 목적을 달달치 못할 줄을 깨달을 것이니, 일찍 해외에 있어 격렬한 사상을 고취하던 자가 동경에 와서 2, 3년 간 교육을 받노라면 번연(翻然) 인구몽(舊夢)을 버려 이전 동지에게 부패하였다는 조소까지 듣게 되는 것을 보아도 알지라. 신문과 잡지와 서적과 선량한 청년회 같은 사교기관이 있어 기회를 따라 신지식을 주입하면 결코 여사(如斯)한 무모를 행치 아니할 것이라. 또 사회의 규모가 엄정하여 인인이 그 사회의 선량한 감화를 받으며 사회의 제재를 두려워하기를 법률의 제재보다 더하게 되면 결코 청년들이 이처럼 단체적으로 주색의 쾌를 취하지 아니하게 될지라. 조선도 석일(昔)에는 매동매향(每洞每鄕)에 엄연한 불문율이 있어 사회가 스스로 다스려가더니, 근래에 이것이 다 깨어지고 새 것이 아직 확립치 못하여 인인이 헌병이나 순사에게 포위만 아니 당하는 일이면 기탄없이 행하게 되니 이에 적이 재산 있는 이는 주색과 사치와 태만에 빠지기를 자랑하게 된 것이라. 저 사회의 일류 명사라는 변호사, 실업가 등은 그 언행의 조야 외설함으로 사회의 청년을 독해(毒害)하고 교육가, 종교가 같은 선량한 인격자는 사회의 냉대를 받아 청년의 숭앙하는 목표가 되지 못하게 하니, 이에 청년들은 도도히 악풍조에 휩쓸려 무수한 죄악과 손실을 초래하는 것인가 하나이다. (강조 — 인용자) — 「대구에서」, 136쪽

이 중 강조한 부분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곳이다.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독립 운동이 불가능함을 깨달을 수 있음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해외에서 격렬한 민족주의 사상을 혹은 독립 운동이나 혁명 사상을 고취하던 자라도 도쿄에 와서 이삼 년 간 교육을 받으면 그런 사상이 사라진다고 춘원은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을 다른 사람 아닌 춘원이 썼다는 것, 또 다른 곳이 아니라 총독부 기관지에 썼다는 것은 춘원 생애에서 획기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헌책을 기뻐한 것은 총독부였음에 틀림없

다. 『매일신보』 사장 아베 요시이에(阿部 義也)는 후에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에게 춘원의 이 헌책을 건의하였고, 그 후로도 춘원을 돌보아주었는데 이러한 관계는 아베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동경잡신」의 사상

춘원의 위 글은 물론 검열을 의식하고 씌어진 것이고, 또 총독부 기관지인만큼 표현이 다소 노예적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문화주의적 점진주의 사상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글을 쓴 의도는 식민 통치자들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이 글이 통치자들의 구미에 꼭 알맞는 것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다. 처음 그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총독부 쪽에서도 이런 헌책의 효과를 아직 미지수로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매일신보』는 춘원으로 하여금 곧 이어 「동경잡신」(1916. 9. 27~11. 9)을 쓰게 하였다. 그것을 총독부 쪽에서도, 독자 쪽에서도 흥미 진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일찍 해외에 있어 격렬한 사상을 고취하던 자가 동경에 와서 2, 3년 간 교육을 받노라면 번연 인구몽을 버려 이전 동지에게 부패하였다는 조소까지 듣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도쿄란 어떤 곳이기에 그러한가. 도쿄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총독부는 총독부대로, 독자는 독자대로 요구하고 있었다. 춘원은 여기서 일생일대의 내기를 하는 셈이었다. 이 내기에서 져서는 안 되었다. 「동경잡신」은 그만큼 춘원에겐 중요한 글이며 전력을 기울인 것인 만큼 근 한 달이 넘는 장문의 연재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동경잡신」은 ① 학교, ② 유학생의 사상계, ③ 공수학교(工手學校), ④ 학생계의 체조, ⑤ 총망(惣忙), ⑥ 목욕탕, ⑦ 경제의 의의, ⑧ 근이기의勤而已矣, ⑨ 명사의 검소, ⑩ 가정의 예산 회의, ⑪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묘를 배拜함, ⑫ 문부성 미술 전람회기, ⑬ 지식욕과 독서열, ⑭ 일반 인사의 필독할 서적 수종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학교

에서 출발하여 독서에 관한 것으로 끝나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듯 춘원의 관심은 시종 새로운 지식의 수용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신문 기자적 재능과 집필 태도는 이 글에서 유례없는 수준과 전형적인 틀을 형성하였다. 육당에서도 다소 그러했지만 춘원은 특히 신문 기자적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의 직업은 문사라 함이 비교적 걸맞다. 그는 소설가이지만 또한 『동아일보』의 '사설' (四說, 사설·형설수설 등의 네 가지 칼럼)을 도맡아 쓰기도 한 적이 있으며, 직업다운 직업(십여 년간)을 가진 것도 신문 기자직이었다. 『조선일보』로 옮겨서도 유명한 칼럼 '일언일사'를 근 이 년 동안 계속한 바 있다. 그러한 일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문체 확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체는 물을 것도 없이 사상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보면 「동경잡신」은 춘원 연구에서 「무정」이 차지하는 만큼의 비중을 갖는 것이다.

신문 기자적인 춘원 문체의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우선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문명 개화를 모든 가치 척도의 머리에 올려놓았다는 점이다. 육당도 그러했지만, 한일합방 전에 교육을 받고 청년이 되어버린 세대 중에서 일본 유학생 출신은 문명 개화라는 마법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배우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논법이 암암리에 작용하여 의식을 누르고 있었다. 둘째, 이 문명 개화의 표준이 일본 도쿄였다는 점이다. 그가 배우고 안 것이 도쿄뿐이기에, 이를 표준으로 조선의 현실을 비교 대조 비판하는 방식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항시 우러러보는 대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셋째, 조선 사회의 개혁은 ① 문명 보급, ② 사회 개량, ③ 산업 개발의 세 가지 길이 있을 뿐이라는 사상이다. 이 중 그가 할 수 있는 분야는 ①뿐이다. 그럼에도 ②③을 외면할 수 없는 곳에 신문 기자로서의 그의 문체의 틀이 결정되었다. 민족 개조 운동인 홍사단(수양동우회)이 ①③을 위한 것이었음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춘원의 신문 기자적 경력은 ②③에 점점 기울어지게 한 것이다.

「동경잡신」은 유학생들이 “정치학을 학學함은 반드시 정치가가 되려 함이 아니니, 조선의 현황이 조선인 정치가를 요구치 아니하는 처지에 재在함을 피등彼等도 선지善知”(「동경잡신」, 302쪽)하고 있다고 적어, 총독부 기관지에 발표한 글임을 드러내었다. 도쿄의 문명 예찬이 아닌 조선인의 자량을 늘어놓은 대목은 오직 '문부성 미술 전람회기' 중의 한 대목이다. 그 전시회에는 춘원과 메이지 학원 동창인 김관호金觀鎬의 그림이 특선으로 뽑혀 전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목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인의 긍지를 일깨우는 쪽보다는 일본인의 그림 수준에 얼마나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가를 탄식하는 투로 되어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춘원이 조선을 자랑한 유일한 대목이다.

“조선인의 그림”이라는 여학생의 소리에 번쩍 정신을 차려보니 대동강 석양에 목욕하는 두 여인을 畵한 김관호 군의 「일모日暮」라. 아아! 김관호 군이여! 감사하노라. 차에 군의 작품 한 점이 무하였던들 얼마나 여로 하여금 저어齷齪케 하였으리요. 여는 군이 조선인을 대표하여 조선인의 미술적 천재를 세계에 표하였음을 다사多謝하노라. 금하今夏 조도전대학에 최·현(최두선·현상윤—인용자) 양군의 특대생이 유하고 갱更히 군의 금일의 광영이 유하니 조선인을 위하여 군 등 3인은 만장의 기염을 양揚하였도다. 여는 이 전람회에 오직 한 점의 조선인의 작품을 견見함을 한恨하거니와, 차가 장차 천백 점이 출出할 예정豫徵으로 사思하고 수무족도手足舞蹈를 불금不禁하노라. 금일의 상태로 관觀하건대, 차 전람회 진열품 300여 점 중 30점도 조선인의 수手로 작작할 듯 아니하거니와 조선인이 점차 각성하여 각 방면의 천재를 신伸하는 일日에는 족히 매년 차 300점을 조선인의 수로 작할 것을 확인하며 양양한 희망에 흥중이 자주 땀을 불금하노라.

—「동경잡신」, 321쪽

춘원과 같은 생각을, 한 세대 후배이자 춘원과 문학적 이념에서 맞섰던 김동인도 가졌음은 흥미 있는 일이다. 도쿄 미술학교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김관호는 일본 미술계의 최고 관문인 동미전 東美展(제전帝展의 전신)에 특선까지 하여 크게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고국에서는 귀국한 이 천재에게 『매일신보』가 금강산 탐승의 글과 그림을 축약했을 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소학교에서는 그를 도화 교사로 초빙하였다. “이것이 천재에 대한 조선의 최고 인식이었다”¹⁰⁶⁾라고 김동인은 개탄했거니와 김동인 역시 천재병에 들린 바 있어, 이 점에서는 춘원과 일치하였다.

「동경잡신」에서 춘원이 가장 힘들여 쓴, 또 가장 자신 있게 쓴 대목은 신지식에 대한 부분이다. 그것은 ‘지식욕과 독서열’과 ‘일반 인사의 필독할 서적 수종’의 두 항목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일본의 독서열을 그는 다음처럼 들었는데,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동경에서 매삭 발행하는 대잡지만 열거하더라도 『태양』 『신일본』 『일본급일본인』 『중앙공론』 『실업지세계』 『부인세계』 등 보통적 잡지와, 『학생』 『중학세계』 『모험세계』 등 중학생 정도의 잡지와, 『소년세계』 『유년세계』 『소녀세계』 『유년화보』 등 소년잡지와 기타 종교, 철학, 법학, 과학, 문학, 제반 전문잡지를 총계하면 4, 50종을 불하不下할지며 기타 경도, 대판 등 지방에서 발행하는 자를 합하면 수백여 종에 달할지니 이 수백여 종 수십만 부의 잡지는 매일 신지식을 만재하고 문명인사의 안두案頭를 방문하여 영·미·불·독의 잡지도 다수히 신지식을 만재하고 일본에 입사하여서 문명에 보補하도다. 동경 7, 8처 대도서관에는 매일 주야로 수만의 인사가 지식을 구하며, 종류 이상의 가정의 최最히 자랑하는 저축은 선량한 도서의 충동充棟함이로다.

식후에 독하고, 취침 전에 독하고, 사무 여가에 독하고, 기차·전차·인력거 상에 독하고, 독하고, 독하여 신지식을 구하되 오히려 부족하여하니 조선인사가 그의 안중에 소아小兒 같지 아니할 리가 기유豈有하리요.

106) 김동인, 「적막한 예원藝苑」, 『김동인 전집』 6(삼중당, 1976), 257쪽.

각 신문의 제1면은 신간서적의 광고를 위하여 저가低價로 減價하니 매조 매석 신문 제1면을 보라! 다도함도 다할사 귀중한 신간서적이어.

—「동경잡신」, 324쪽

춘원의 신문 기자적 문체의 전형을 여기서 볼 수 있다. 도쿄의 가장 훌륭한 문명 개화의 한 모습을 내세우고, 그것에 비추어 우리 조선은 얼마나 못나고, 조선인은 얼마나 게으르고 돼먹지 않았으며 창피스러운가를 유창하게 펼쳐놓음으로써 조선인 독자들로 하여금 민족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며, 그로 인해 그런 사실을 지적하는 자기야말로 선각자, 지도자, 잘난 사람으로 인식케 하는 스타일, 그것이 식민지 신문사의 편집국장급 문체의 구조이다. 춘원은, ‘일반 인사들의 필독할 서적 수종’이라 하여, 다음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

1. 서양사(纂作元八 저 『西洋史講話』가 最滴할 듯)
2. 세계지리(志賀重昂, 혹은 野口保興 씨의 著)
3. 진화론(丘淺次郎 저 『進化論講話』)
4. 경제원론(誰某의 著나 무방하니 대개 此는 다수히 有함이라)
5. 개국 50년사(大隈重信 編)
6. 중국철학사 及 서양철학사(전자는 涑藤隆吉 씨의 著, 후자는 大西祝 씨의 著가 似好)
7. 『蘇峯文選』(德富猪一郎 저)

—「동경잡신」, 324쪽

이 중 마지막의 『소호 문선』은 주목을 요한다. 1에서 6까지의 서적은 모두 신문명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어서, 춘원의 말과 같이 “한문만 지知하는 자는 상하이 상무인서관에 주문하면 순한문 각종 신서적을 구득할지요, 기타는 『경성일보』 대리부에서 주문하면 가”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소호 문선』은 지식에 관한 책이 아니다.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峯, 1863~1957)는 잡지 『국민지우國民之友』를 창간했고, 신

문 기자로 이름을 날린 문장가였다. 또한 철저한 일본 황실 지지파로서 유명한 메이지 천황의 교육 칙서를 집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춘원은 “소호 씨는 일본 최대最大한 신문 기자니 씨의 20년 간 웅혼경건 雄渾勁健한 문장도 일본의 금일의 문화에 다대한 공헌을 하였나니 차를 독讀함은 일본 문명사를 독함과 여如하여 更히 기문장이 學할 만하니라”(『동경잡신』, 325쪽)라고 토를 달았다. 춘원이 도쿠토미 소호를 처음 만난 것은 1916년 부산에서였다.

춘원은 문사이지만, 그의 직업은 신문 기자였다. 앞에서도 적었듯이 십수 년을 그는 신문사에 몸담아 이른바 ‘사설’을 썼거니와 그 문장은 많건 적건 신문 사실적 훈계조를 띤 것이었다. 항시 일본의 좋은 점과 조선의 현실을 대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바보스럽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도쿠토미 소호의 문체가 그러했음도 사실이다. 대체로 일본 메이지기의 문체는 한문체를 근간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메이지 초기엔 신정부의 대신(참의參議)들이 모두 한문에 소양 있는 서생들이었고, 또 한어漢語의 조어력에 힘입어 언문 일치를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였다.¹⁰⁷⁾

특히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는 글에서는 한문체를 꼭 사용하였다. 신문의 모든 사설도 한주종화漢主從和의 문체를 썼다. 이 사정은, 그토록 한글을 쓰고자 애쓴 육당이 「기미독립선언문」에서 한주국종漢主國從의 문체를 구사한 사정과 흡사하다. 춘원이 스스로 말하듯 언어에 특출한 재능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메이지 시대 대문장가이며 신문 기자 출신인 도쿠토미 소호의 문체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이다. 「동경잡신」은 이런 점에서도 흥미되어야 할 글이다.

우리는 총독부 당국이 춘원에게 「대구에서」에서 지적한, 과격 사상을 바보로 만드는 그 도쿄 생활을 써보라고 권유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아무리 과격한 사상을 가진 조선 청년도 일단 도쿄에서 이삼 년만

공부를 해보면 그런 사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고 춘원은 장담하지 않았던가. 어쩌서 그러한가를 요구받고 쓴 글이 「동경잡신」이 아니었을까. 과연 이 글을 보면 도쿄는 별천지이며 일본 사람들은 한 점 나무랄 곳 없는 특등 종족으로 그려져 있다. 문체까지도 일본 문체를 배워야 한다고 적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신문 기자로서의 문체 확립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소설가이기에 앞서 신문 기자였기 때문이다.

「동경잡신」에서 대단한 인기를 모은 춘원은 잇달아 장편 논문 「문학이란 하何소」(1916. 11. 10~11. 23)를 『매일신보』에 연재하였다. 이 논문은 비평가로서의, 또 문학 이론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살피는 데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 비평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한 만만치 않은 글이다.

문학론의 수준

춘원의 문학론은 「국문과 한문의 과도시대」(『태극학보太極學報』 제21호, 1908)를 위시, 「문학의 가치」(『대한홍학보』 제11호, 1910) 등을 거쳐 「문학이란 하오」와 「현상소설고선여언」(『청춘』 제12호, 1918)에서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이란 하오」가 원론적인 것을 다룬 것이라면 「현상소설고선여언」은 실천적 측면을 다룬 것이다. 춘원이 파악한 문학 원론은 모두 열한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①은 ‘신구어 의新舊語義의 상이相異’인데 “문학이란, 서양인이 사용하는 문학이란 어의를 취함이니, 서양의 Literature 혹은 Literatur라는 어語를 번역한 것”임을 재천명하고 있다. ②는 ‘문학의 정의’로서 “특정한 형식하에 인의 사상과 감정을 발표한 자”이며 그 목적은 미감과 쾌감이다. ③은 ‘문학과 감정’으로 이 항목은 춘원 문학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문학은 정情의 기초상에 입하였나니 정과 오인의 관계를 종從하야 문학의 경중이 생생” 하며 근대 이전의 문학은 “순연純然한 정의 만족이 아니라 지적 도덕적 종교적 의의를 첨添하야” 정을 종속적으로 처리하였

107) 村山吉廣, 「한문맥漢文脈의 문체文體」, 『국문학國文學』 제25권 10호, 10쪽.

으나 근대 이후의 문학은 지知, 의意와 함께 정의 완전 독립을 획득한 것으로 보았다. ④는 '문학의 재료'이다. 정의 만족이 문학의 목적이 라 할 때 정의 만족은 곧 흥미라 할 수 있다. 흥미는 생활 상태에서 오는 것으로 묘사론과 관계된다. 재료에는 호호·불호不好가 있고, 묘사에도 정정·부정不正, 정情·부정不情이 있으므로 최호最好의 소재를 최정最正·최정最情하게 묘사하면 최호의 문학이 된다고 보았다. 최호의 재료란 평범 무미의 많은 인사 현상이니 연애, 분노, 비애, 악한, 희망, 용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학적 결작 속의 연애라면 연애 중에서도 교육 있는 자로서 재모가 뛰어나고 부모의 허락을 부득한 경우를 여실히 묘사한 경우가 된다. 춘원의 작품 구성 원리의 일단이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는 '문학과 도덕'이다. 종래 문학이란 유교적 도덕을 고취하는 자, 즉 권선징악을 풍유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는데, 이는 문학 발전을 저해한 원인이었다. 신문학 건설의 마당에선 이러한 편협한 문학관을 타기해야 할 것이다. 문학이 도덕의 속박을 탈한다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모종의 특정한 도덕을 고취하기 위하여 또는 권선징악의 효과를 득得하기 위하여 문학을 행하지 말고 일체의 도덕 준승準繩을 불용不用하고 실재한 사상·감정과 생활을 여실히 만인의 안전에 재현"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춘원의 초기 문학관은 춘원 문학 전반과는 갈등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춘원이 일본의 자연주의 문학론에서 영향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⑥은 '문학의 실효'이다. 문학의 목적은 정情的 만족이지만, 이 근본적 목적 외에 다른 여섯 가지의 실효가 열거되어 있다. 첫째, 세태 인정의 기민機敏에서 정신적 지식을 얻어 처세와 교육에 필요하다. 둘째, 인정 세태를 이해함으로써 인류의 고귀한 덕이며 선행의 원동이 되는 동정심이 나온다. 셋째, 죄악에서 구조될 수 있다. 넷째, 경험의 영역을 넓힌다. 다섯째, 고급한 캐미인 문학으로 하여 저급한 주색을 피할 수 있다. 여섯째, 심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⑦은 '문학과 민족성'이다. ⑧은 '문학의 종류'이다. 이 항목 속

엔 소설의 정의가 "인생의 일방면을 정正하게 정情하게 묘사하여 독자의 안전에 작가의 상상 내에 재在한 세계를 절실하게 역력하게 개전하여 독자로 하여금 공세계내共世界內에 재하야 실현하는 듯하는 감을 기르게 하는 자"로 되어 있다. ⑨는 '문학과 문文'이다. 문이란 문장 혹은 문체를 뜻한다. "신문학은 반드시 순현대어, 일용어라야 한다." ⑩은 '소설과 문학자'이다. ⑪은 '조선 문학'이다. 조선 문학은 "조선인이 조선문으로 작作한 문학"이다.

이상이 그 전모이다.

이러한 원론이 1910년대를 풍미하던 일본 문단의 자연주의 수준과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를 살피는 일은 비교 문학적 과제에 속할 것이다.¹⁰⁸⁾ 그 속에는 당시 와세다 대학 문학과에서 강의되던 문학론이나 그 교과서가 웅당 포함될 것이다.

한편 실천적 측면은 어떠했던가. 춘원은 ① 시문체時文體, ② 정성스러울 것, ③ 예술성, ④ 현실성, ⑤ 신사상의 싹 등을 들었다. 실천 면에서 그가 제일 힘들여 주장한 것이 문장론이었다. 구어체로 쓰되 구두점·띄어쓰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곧 현실적인 묘사를 한다는 뜻이었다.¹⁰⁹⁾

이러한 두 주장은 「무정」의 작가 춘원을 염두에 둔다면 딱 낮설게 보일 것이다. 그의 소설은 다분히 교훈적이며, 계몽소설의 일종인만큼 앞에서 보인 제법 사실적인 원칙론은 걸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어긋남은 현실과 이상의 어긋남과 비슷한 것이라 하겠다.

「문학이란 하오」 같은 장편 논문 외에도 그는 「조혼의 악습」(1916. 11. 23~11. 26), 「조선 가정의 개혁」(1916. 12. 14~12. 22)을 같은 『매일신보』에 발표하였다. 두 논문이 함께 춘원이 익히 아는, 자기 체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 오산의 용동 마을 개조 운동을 남강으로

108) 김윤식, 『근대 한국 문학 연구』(일지사, 1973), 65~73쪽.

109) 김윤식, 위의 책, 89쪽.

부터 이어받아, 동회장 노릇을 한 바 있는 춘원이기에 그 논의는 다소 실감을 동반한 것이었다. 물론 그의 논지 전개는 다른 논문과 대동소이한 틀에 박혀 있다. 「피문명국의 가정을 관觀하니」로 시작하여 우리 가정은 왜먹지 않았다는 논지를 전개하며, 그 효과를 주장하는 만큼 논조가 과격하다. 가정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고아로 성장한 춘원이기에 심리적 부담감 없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비판들은 추상적이다. 가령 춘원의 이러한 글을 두고, 한창수 등 중추원 양반들이 『매일신보』에 연명 투서하기를 “이광수란 놈은 아버·어미 없이 자란 하향下鄉 상놈의 자식으로서”(「‘무정’ 등 전작품을 어語하다, 521쪽)라고 한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지적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추상적이긴 하나, 춘원에게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 실감이 있는 것이다. 한편 「조혼의 악습」은 춘원에겐 더욱 체험적이어서 절실한 울림을 갖는다. 「혼인론」을 비롯하여 춘원은 여러 논문에서 조혼을 비판하였거니와, 여기에는 구도덕 혁파라는 일반론적 명분 외에도 그의 개인적 아픈 기억이 상흔으로 박혀 있다. 칠칠치 못했다고 스스로 표현한 그의 부모가 그를 장가보내려 하다가 김교리에게 당한 수모를 춘원을 잊을 수 없었다. 이 조혼 문제는 또한 당시 신사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젊은 층에게는 비상한 관심거리였다. 특히 유학생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자유 연애 사상과 결부되어 심각성이 고조되었다. 자유 연애 사상이란 서양 문학의 밑바탕에 놓인 윤리 감각이다. 부부 관계 중심의 사회에서 이룩된 자유 연애 사상은 부자 관계 중심으로 이룩된 우리 전통 사회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인만큼 사회의 변혁 없이 머리(관념)로만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넘어서고자 한 것이 춘원의 모험이었다. 그는 첫 단편소설의 하나인 「무정」(1910)에서 조혼 문제를 다루었고, 또 희곡 「규한閨恨」(1917)에서도 이로 인한 한국적 비극을 다루었다.

「농촌계발」— 무실역행 사상

논문 「조혼의 악습」에서 춘원이 지적한 부분, 가령 “중등 정도 이상 학생에 ‘아버지’가 반수나 됴은 물론이려니와, 코 흘리는 보통학교 일년급 중에서 ‘서방님’이 불소不少하니, 조선인은 실로 세계의 조혼국으로 인도의 차次에 가는 자”¹¹⁰⁾라는 지적은 아마 당시로서는 사실이었으리라. 그의 글이 힘이 있음은 이 때문이다. 「문학이란 하오」의 연재를 끝내자마자 춘원은 곧바로 『매일신보』에 무려 삼개월에 걸쳐 논문 「농촌계발」(1916. 11. 26~1917. 2. 18)을 연재하였다. 이 논문은 그가 상하이에서 귀국한 이듬해인 1922년에 쓴 장편 논문 「민족개조론」과 분량이 비슷하며 또한 사회적 사상적 비중 면에서도 족히 맞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제1장 ‘서론’에서 비롯, ‘향양리向陽里의 현상’, ‘청년을 고동鼓動함’, ‘동회의 설립’, ‘제1회 예회例會’, ‘제2회 예회’, ‘제3회 예회’, ‘회장의 이상’, ‘하기중 행사’, ‘신문회’, ‘난회蘭姬’, ‘장래의 금촌金村’ 등 모두 열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큰 논문이 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산학교에서의 수년 간의 이론과 실천을 통한 그의 행적 때문이다. 오산학교 교원인 춘원은 교주 남강의 뒤를 이어 용동 마을의 동회장을 겸하였다. 남강은 도산 사상에 촉발되어 무실역행 운동에 뛰어들었고, 그 첫 사업으로 자기가 사는 마을의 개조 운동부터 착수하였다. 이는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운동으로서 저축, 청결, 공동체의 일 등을 조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박이나 음주, 게으름 등이 지배하는 전통적 인습적 생활을 혁파함에 앞장선 것이다. 남강의 감화로 용동 마을의 개조 운동은 용이하게 진행되었다. 남강이 신민회 사건으로 투옥되자 춘원이 동회장의 일을 맡았다. “회장은 매주 토요일이면 각 가정을 순시하였다. 대문과 문전과 마당과 수채구멍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뒷간도 보기로 되어 있었고 [...] 부

110) 「조혼의 악습」, 『이광수 전집』 10, 542쪽.

억도 보았고 [...] 젊은 남자인 나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여야 하였다. 그것은 안방에 들어가서 이부자리를 펼쳐놓고 검사하는 일이었다”(「나의 고백」, 236쪽)라는 구절에서 보듯 춘원은 이런 동회 새마을 운동을 실천해온 경력이 있었다. 논문 「농촌계발」은 따라서 우발적으로 씌어진 것이 아니다. 이 논문에 나오는 향양리는 호수 1백 호, 인구 5백 명, 백석百石 추수 삼 호, 동민은 거의 소작인인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마을이다. 이는 물론 가상적인 명칭이고 이 마을을 보다 잘살게 하기 위해 문제적 인물이 설정된다. 도교 유학에서 법률을 공부하여 판사가 된 김일이 조선 문제의 근본이 농촌 계발에 있음을 깨닫고 고향 향양리에 돌아와 계몽 운동을 펴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논문은 단순한 논문이 아니다. 허구적 설정을 했고, 또 서술 방식도 소설적인 것을 많이 가미하였다. 논설적인 것과 소설적 허구를 알맞게 배분하여 흥미를 고조시켰다. 종래의 딱딱한 논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연하고 설득력이 풍부하다. 춘원이 진단한 농촌 사회의 결함을 통틀어 말하면 “밥이 없고 교육이 없고 종교적 신앙이 없음이며”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십 년을 기약한 공동체의 노력을 내세웠다. 그 실천 방안을 조목조목 전개한 것은 특히 주목된다. 늘 허황된 이상만을 쳐들던 그에게 이런 구체성이 표명된 것은 전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 계발이 무실역행과 함께 준비론의 일환이자, 민족개량주의의 일종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구에서」에서 제시된 교육받은 조선 지식 청년의 구체책과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것이다. 「대구에서」가 조선 지식인의 구체책이라면 「농촌계발」은 조선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농촌 구체책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인의 처지에서 보면 「대구에서」나 「농촌계발」에서 제시된 구체 방식은 지엽적이지 미봉책이어서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것으로 비난될 수 있고 나아가 총독부 정책에 아첨하는 반민족적인 것으로 비판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반대로 총독부 쪽에서 보면 춘원의 헌책은 조선 통치 방법으로는 그럴싸한 것이어서 통치의 명분과 실리를 함께 거둘

수 있는 것이었다. 야망에 불타는 젊은 춘원이 이 상반된 양면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는 이 양쪽에다 온몸을 걸고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가 이런 논책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다 쓴 것도 그런 계산된 모험 속에 포함된다. 『매일신보』가 당시 언문으로 된 거의 유일한 신문이자 총독부 기관지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가 거기에 글을 쓰는 일은 조선인과 총독부 양쪽에다 자신을 놓는 유일한 방식이었던 셈이다. 스스로 선각자요, 문제적 인물이라 자처한 춘원은 통치자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대다수의 피통치자인 조선 민중도 아니었다. 그는 그였다. 바로 이 모험이 그로 하여금 어느쪽에서나 칭찬과 비난을 받게 한 근본 이유이다. 민족의 독립은 먼 장래에다 둔다는 것,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타협주의라 하여 비난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다른 방도를 묻는다면 이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식민지하에서의 국내적 삶의 방식의 하나가 준비론이었던 셈이다.

춘원의 「농촌계발」은 후에 『동아일보』 중심의 브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씌어진 장편 「흙」(1932)에서 문학적으로 재현된다. 오산학교 시절 청년 교사 춘원의 「용동」 마을 개조 운동에서, 「농촌계발」을 거쳐 「흙」에서 완성되는 이 운동은 무실역행의 일종이며, 춘원에겐 긴 세월을 걸친 일이었다. 「흙」의 문학적 수준이 변변치 못하다든가 특출하다는 일과는 관계없이 이 작품이 우발적으로 씌어진 것이 아님은 이로써 명백해졌다.

「대구에서」에서 「신생활론」까지

일면 「농촌계발」을 연재하면서 같은 지면, 그 중에도 신문 제일면에 장편소설 「무정」을 연재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16년 1월 1일부터 1917년 6월 14일까지 연재된 「무정」은 춘원의 대표작에 해당

되는 소설이거니와, 이것에 이어 「오도답과기」(1917. 6. 26~8. 18), 장편 「개척자」(1917. 11. 10~1918. 3. 15)를 또한 연재하였다. 이렇게 굵은 글들을 『매일신보』에 연재하는 한편으로 『학지광』에 「극웅행極熊行」, 「우리의 이상」을, 『청춘』에는 「어린 벗에게」,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 등을 썼다. 실로 왕성한 활동능력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활동이 춘원의 제2차 유학 때의 일이라는 점이다. 첫 번째 유학 때 그가 일본에서 배운 것은 지식보다는 지사적인 사상이었다. 홍명희·문일평을 비롯한 동급생들의 영향도 있었지만, 춘원의 제1차 유학 때의 유학생들의 지적 분위기는 애국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을사조약이 발표되었을 때, 손병희를 찾아가 울부짖던 어린 중학생 춘원의 가슴속에는 지사적 울분이 가득 찼던 것이다. 졸업하자마자 분연히 교사로 오산에 온 것도 이런 풍조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두 번째 유학의 초반기에 그가 얻은 것은 지식 습득 사상이었다. 도쿄에서 배운 것은 지식이었다. 특대생이 되고 일본의 문명개화를 배워, 이를 조선에 적용하는 일이었다. 독립은 먼 장래에다 두고, 우선 일제에 협력하면서 그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탓이다. 한일합방이 된 지 수년이 지났고, 식민지 체제는 점점 굳어져가는 시점이었다. 지사적 태도는 국내에서는 용납되지 않았고 따라서 설득력도 가질 수 없었다. 이 사정은 3·1운동 이후로 이어진다. 춘원이 제1차 유학에서 돌아와 활동한 무대가 오산학교 및 그것에 이어진 육당의 신문관이었다면 제2차 유학 후 활동한 무대가 『매일신문』이었고, 상하이에서 귀국한 후의 활동 무대는 초기엔 『개벽』이었고, 뒤엔 민족지라고 자타가 일컫는 『동아일보』였으며, 「민족개조론」이 그 대표적 논설이었다. 이렇게 춘원은 외국에서 귀국하는 세 단계 시기와 그것에 각각 해당되는 단계적 활동을 했음이 판명된다. 방랑이란 그의 핏속에 감추어진 생명 의식이었다. 방랑이 있고야 그는 놀랄 만한 능력의 대폭발을 일으키곤 했던 것이다. 김동인이

누군가가 춘원을 평하면서 야호선(野狐禪, 들여우의 수양된 모습)이라 한 것을 인용한 것도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¹¹⁾

둘째, 춘원의 『매일신보』에서의 여러 분야의 대활약은 그대로 한 덩어리의 활동이라는 점이다. 「무정」과 「개척자」는 소설이고, 「대구에서」, 「동경잡신」은 기행문이며, 「농촌계발」은 가상적인 보고문이며, 「문학이란 하오」는 문학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개념은 춘원에겐 무의미하다. 그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전개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지 문자 행위를 전개했을 뿐이다. 한갓 글을 썼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문장이란 그 자체가 사업이요 사상이었다. 그 사상이 준비론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제2차 유학으로 도쿄에 가보니, 조선 독립의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연한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사고 방식이 바로 실력 양성이요 민족 개조론이다. 이 한 가지 사상을 그는 「문학이란 하오」에서, 「동경잡신」에서, 「오도답과기」에서, 「무정」, 「개척자」에서 역설했을 따름이다. 이는 그가 계몽주의자인 증거이며 그의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임을 새삼 말해주는 것이다. 그는 한평생을 이런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를 작가라 부르는 것은 물론 옳지 않다. 사상가라 불러도 옳지 않다. 그를 다만 문장을 쓴 사람이라면 비교적 정확하리라.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다만 '문자 행위'를 통해서였다. 그것은 일종의 관념적 행위여서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문자 보급이 덜 된 사회일수록 문자 행위의 관념성과 그 영향력은 증대된다. 더구나 그 관념성이 현실과 유리되어, 관념과 현실의 분리가 애매모호하면 할수록 그것의 논리적 극복은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춘원의 비극은 문학과 사상과 논쟁과, 작가와 시인과 신문 기자와 수필가, 또 동우회 조직자와 서생書生과 생활인, 이 모두를 분리하지 않고 한몸 속에 체현하고자 한 점에 있다. 그가 스스로 인격을 갖추고자 했고, 사람들이

111) 김동인, 「작가 4인」, 『김동인 전집』 6(삼중당, 1976), 246쪽.

그에게 인격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몸에 모든 것을 갖추는 것, 이는 인격을 갖춘다는 뜻이다.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을 들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고질로서 그의 나르시시즘을 들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듯이 그는 여러 가지를 한몸에 체현하고자 했으며, 그런 일은 초인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초인적 힘이 미달되면 돈 키호테로 보이게 된다. 풍차를 거인이라 착각하고 돌진하는 돈 키호테는 웃음거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16, 17년 무렵 춘원의 『매일신보』에서의 엄청난 활동은 초인적이라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다. 그는 와세다 대학 특대생이면서 『학지광』, 『청춘』, 『매일신보』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이 단계의 그의 문자 행위는 아무도 돈 키호테라든가 인격 미달 혹은 인격 분열증이라 할 수 없다. 당시의 춘원은 자기 개인을 넘어서서, 한국 민족과 총독부 사이를 일거에 초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팽팽히 시위 당겨진 화살과 같았다. 총독부의 현책은 그에게는 대낮의 사상이었다.

셋째, 춘원의 민족개조론은 도산 사상으로 연결되어 더욱 확고해지지만, 그 씨앗은 이미 「대구에서」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조흔의 악습」을 거쳐 「신생활론」에 오면 요지부동의 이론으로 자리잡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신생활론」(1918. 9. 6~10. 19)은 유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비판한 대논문이며, 또 상당한 논리를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유교와 기독교의 약점을 구체적인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끌 수 있었다. 이 유교 비판은 ① 총론, ② 송고崇古와 천중화薦中華, ③ 경제를 경히 여김, ④ 형식주의, ⑤ 효의 사상, ⑥ 부부관계, ⑦ 소극주의, ⑧ 상문주의尙文主義, ⑨ 계급사상, ⑩ 운수론, ⑪ 비과학적, ⑫ 점잔, ⑬ 결론 등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도전적이다.

(A) 흥하는 자에게는 항상 점잖지 못한 청년의 만기蠻氣가 있어야 합니다. 동경제일고등학교 생도는 국가의 주석柱石으로 자임하기로 유명하고

동시에 점잖지 못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네는 폐의과혜弊衣破鞋에 몸뚱이를 두르며 “요이, 요이 뻥간쇼”(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라는 뜻—인용자)를 부르며 횡행 활보합니다. 일본의 원기는 거기 있습니다.

—「신생활론」, 343쪽

(B) 수년 전 『학지광』에 송진우 군의 공자와 유교에 관한 논문(「사상개혁론」, 『학지광』 제5호, 1915. 5을 지칭함—인용자)이 게재되며 당시 조선 신문의 조선문난주사朝鮮文欄主事는 수일에 공하여 그 사설난에 신랄한 공격의 논문을 연재하여 침묵하던 조선논단에 일시 이채를 발한 적이 있습니다. [...] 여의 차문此文이 세세에 출출하면 반드시 당시에 배배하는 공격의 시도가 우하雨下할 줄 자신하거니와, 자에 여는 공격하는 이가 다만 인습과 감정에만 잡히지 말고, 냉정하게 공평하게 사실을 사실로 논리는 논리로써 하시기 바랍니다.

—「신생활론」, 344쪽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A)와 같은 조선의 유학자 계층을 공격하는 글을 발표했다는 것은 상당한 도전적 행위이며, 정정당당히 ‘논리’로 대결하자는 (B)는 공공연한 도전장에 해당된다. 춘원이 유교를 공격한 것은 유교 자체가 아니라 ‘조선의 유교’를 공격한 것인만큼 더욱 도전적이었다. 기독교 공격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춘원의 자신만만한 도전에 대해 중추원을 위시한 유교 계층은 요로에 진정서를 내어 이 논문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당시 『매일신보』의 사고社告가 이를 증거한다.

증자알證者曰, 신생활론은 본래 신진사상가인 이춘원군의 일가언一家言으로 차를 기고함인즉 기其의론의 전부가 본사의 주의로 중출從出함이 아니요, 우 기사상으로 하여금 일반 독자에게 공정을 강요코자 함이 아님은 물론이요, 폐막弊癥 많은 구시대의 생활은 개신하자는 일의견으로 대방유지大方向有志에 차를 천薦함이다. 금에 중단되었던 차고를 속계續揭함에 제

하여 특히 일언을 부가하노라.¹¹²⁾

이로 보면 『매일신보』도 무척 난처하여 「신생활론」을 일시 중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당시 유교측 세력은 컸다. 그들은 상류층이었다. 이로써 춘원의 이 논문이 그만큼 도전적 자주적이었음이 짐작된다. 이 글을 쓸 당시 춘원은 각혈을 하고, 허영숙과 열애에 빠져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춘원의 이러한 사상은 「대구에서」에서 제시된 논지의 자연스런 발전이다. 춘원과 그의 사상을 계속 옹호하고 감싸준 것은 『매일신보』였다. 그러나 그 사상은 문제가 있었다. 춘원의 사상은 「대구에서」를 원형으로 삼는다. 그것을 핵으로 하여, 이를 보다 깊게 정밀히 조립해놓은 것이 「신생활론」이다. 그 원형은 준비론 사상이다. 이 실력양성론은 물론 엄격히 토가 달린 조건을 갖고 있었다. “사무가 고상하고 복잡한 것은 일본인이 하고” “조선인은 사무원과 기술자, 보통학교 교원 정도”에 만족하는 그러한 실력양성론이다. “교육받는 조선 청년의 위험 인물을 제거하는 방책”이 고스란히 「대구에서」에 들어 있다. 춘원이 아베阿部를 통해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보낸 헌책의 기본형도 이 속에 들어 있다. 즉 춘원은 「유랑조선청년 구제선도의 건」(1921. 4. 10, 도쿄대 소장 사이토 마코토 문서齋藤文書)에서 중등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지나(만주, 베이징, 상하이) 및 시베리아를 유랑하는 자가 2천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들 위험 청년을 ① 독립 운동을 표방해서 무기를 들고 조선 안에 몰려 들어오는 일, ② 과격파 러시아의 선전자가 되는 일, ③ 사기꾼 또는 절도·강도가 되는 일 등으로 분류하였다.¹¹³⁾ 이러한 위험 인물의 구제책으로 춘원은 「대구에서」에서 제시한 방식을 내세웠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만일 「대구에서」에서의 헌책이 식민지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생존 방식이라는 판단

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사상은 1916년에 이미 완성된 것이어서 그가 상하이에서 변절하여 귀국한 후의 사상이 아님은 명백하다. 다시 말해 「민족개조론」의 사상은 「대구에서」의 연장선상, 더 자세히는 「신생활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음 사실이 새삼 의문시된다. 1919년 2월의 이른바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독립 운동에 뛰어들든 또 하나의 춘원은 무엇인가. 이 의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일 그의 준비론 사상이 자생적이며(뒤에 도산에 의해 보강 확인되는) 「대구에서」에서 형성되었고, 「신생활론」(1918)을 거쳐 「민족개조론」(1922)에까지 일관하는 것이라면 그의 독립 운동에의 투신은 한갓 돌발적 사태인가. 아니면 준비론 사상이란 것이 한갓 총독부를 속이기 위한 트릭이었던가. 이 의문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것은 1918년 무렵에 일어난 춘원의 개인적 일상 변화에서도 한 가지 단서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는 청년이기에 순발력과 함께 우발적 요인이 작용할 틈이 매우 컸다. 그는 사랑의 열병에 걸렸던 것이다. 그 열병을 일시에 초극하는 행위, 그것이 그에겐 필요하였다. 베이징으로의 도피, 베이징 장기 체류의 불가능성, 사랑의 위가, 이미 이룩된 사회적 명성과 그것의 무화無化에의 공포 등등을 한꺼번에 뛰어넘는 방식은 무엇일까. 해답은 자명하다. 혁명 속의 뛰어드는 일이었다. 그러기에 그것은 역사 쪽에서 보면 우연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에겐 필연이었다.

112) 『매일신보』(1918. 9. 27).

113) 강동진, 『일제의 한국 침략사』(한길사, 1980), 381쪽.

7. 「무정」—그 기념비적 성격

문학 생산의 참된 주체

「무정」은 우리 근대소설의 문을 연 작품이기에 문학사적인 의미에서 기념비적이며 작가 춘원의 전생애의 투영이기에 춘원의 모든 '문자 행위' 중에서도 기념비적이 아닐 수 없다. 「무정」은 시대를 그린 허구적 소설이지만 동시에 빈틈없고 정직한, 고아로 자라 교사에까지 이른 춘원의 '자서전'이다. 그 자서전은 그대로 당시 지식 청년들의 자서전으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문자 행위란 무엇이며 자서전이란 무엇인가. 이 두 물음을 씨와 날로 하여 검토하는 방식이 「무정」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앞 장에서 우리는 총독부예의 기관지 『매일신보』에 춘원이 「대구에서」(1916)를 비롯, 「신생활론」(1918)에 이르기까지 실로 초인적인 문필 활동을 벌였음을 살펴보았거니와, 그 속에는 기행문, 논설문, 「무정」을 포함한 소설 등이 들어 있다. 이 문자 행위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보는 일, 즉 총체성의 자리에서 살펴보는 일이 일단 필요하다. 총체성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물론 다른 중요한 철학적 저작과 마찬가지로 한 작가(생산자)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어떤 산물을 생산하는 일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학을 논의할 적에도 인간

의 다른 생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떠날 수 없다. 개개의 문학¹⁴ 작품을 생산케 한 물질적 조건과의 연관 아래서 다루어야 한다는 근거에 이여 있다. 작가가 의식했던 안했던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가 생산한 문학 작품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 삶의 조건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 작품이 삶의 조건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진술은 삶의 물질적 조건을 그대로 재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삶의 물질적 조건의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기존의 삶의 물질적 조건에서 비롯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조건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의 조건을 생산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문학은 인간 활동의 일환이며 인간의 의도적 행위가 문학의 핵심적 인자로 작용하는 것이다. 문학 연구에서 문학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의식적인 이해의 중요성이 이에 근거한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만 나아가면 문학 작품의 진정한 생산 주체가 개인이나 집단이나에 부딪친다. 발생적 구조주의자 폴드만의 관점에 의하면 문학은 사회적 조건인 생산력의 증가로 인한 생산 관계의 변모에 의 요구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생산 관계를 변모시키려는 인간의 의도적인 노동의 산물이어서 문학 생산의 참된 주체는 개인일 수 없고 집단이라 주장된다. 이 발생적 구조주의는 실증적 문학 연구(전기적 연구)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방법이어서 이 자리에서 일단 검토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종래의 전기적 문학 연구의 방법에서는 개인이 문학을 생산한다는 입장에 선다. 작품의 참된 주체가 개인이라면 작가 개인의 전기 연구에 의해 문학 작품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즉 개인적 전기에 의존하면 작가의 저작은 작가의 행동의 일부분일 뿐인데, 행동은 ① 항상 유동적인 신체적 심리적 구조에 의존하고, ② 또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무한히 복잡한 구체적 상황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 양자를 완벽하게 알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완벽하게 안 듯이 우격다짐으로 파악하면

‘자의적’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문학 생산의 참된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잠재적으로 놓여 있는 문학성의 형태 법칙(의미 있는 언어 체계)이 아니겠는가. 이 물음도 부분적 설명에 멈추게 된다. 문학성의 형태라는 것도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학 생산의 주체가 작가 개인도 아니고, 문학적 형태의 기호학도 아니라면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 여기서 사회적 조건 자체라는 견해가 나올 수도 있다. 즉, 문학 생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결정지워져 있는 ‘사회적 조건 자체’라는 것이다.¹¹⁴⁾ 따라서 생산자인 작가는 그의 창조의 중심에 위치한 주체가 아니라 한 상황이나 조건 체계의 한 요소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 서면 인간이 역사적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인간과 물질을 동일시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골드만에 의하면 문학 작품의 주체는 개인도 기호론도 기계론적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집단’이라는 것이다. 나도 너도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창조의 주체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은 작은 공동체이다. 우리란 전우주의 인간이나 민족 따위의 거창한 추상적 보편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곳에 따라 자란 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공동체가 많이 존재하며, 따라서 한 개인은 여러 공동체에 속하는 수도 있다. 가령 춘원의 경우, 「무정」을 쓸 당시(1917)로 보면, 그는 고아 출신이고, 오산학교 교원에서 갓 벗어났고, 육당의 신문관에서 지사적 계몽주의 그룹에 속했고, 도쿄 유학생이었고, 와세다 대학생이었고, 조선연구회 회원이었으며 또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가장 유력한 기고자 중의 하나였고, 한국 민족의 일원이었다. 그렇다면 문학적 체계는 어떤 측면에서의 집단의 범주에 의해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사회 계층이 탁월한 역사적 행동의 주체

114) P. Macherey, *Pour une theorie de la production litteraire*(1966), 内藤 畝金, 『문학 생산의 이론』 제8장(1969), 10쪽.

이며, 의식의 차원에서는 개념적 상상적 세계의 창조 주체라는 전제가 승인되어야 한다. 그 전제는 ‘계층들은 각각 전체의 사회적 구성에 상이한 이상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에 있다. 즉, 인간의 의식적 활동이 역사적 물질적 조건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 계층(집단) 간의 물질적 조건을 가장 잘 구별지우는 것은 사회 계층들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물질적 조건과 이에 의해 형성된 사회 계층들과 문학 작품들이 상호 연관을 맺고 있다면 문학 작품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골드만은 상승적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세계관이라 하고, 몰락적 계층의 그것을 이데올로기라 불러 구분한다. 이데올로기란 한 계층의 이익과 그것을 옹호하기 위한 사회적 발전의 욕망을 띤 견해인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그러니까, 다소 일관성 있게 집단 의식을 구성하는, 존재하는 실제 경향의 일반화이다. 이런 뜻에서 사회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질서의 소멸을 위해 싸우는 상승 집단과 기존 질서의 보존을 위해 싸우는 몰락 집단이 구별될 수 있다면 개개의 문학 작품이 어떤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가, 혹은 형성시켜가는가에 따라 그 작품이 혁명적인가 그렇지 못한가의 가치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각 계층 구성원 개개인이 한결같이 집단 의식의 이데올로기를 총체적으로 의식하고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분히 부정적이다. 실제로 개개인들은 자신의 열망·감정·행동의 의의와 방향성을 드물게밖에는 인식하지 못한다. 실상 실제의 집단 의식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행동을 유발 잉태시키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발전된 사회 집단의 ‘가능 의식의 최대치’, 즉 있을 수 있는 의식이다.¹¹⁵⁾ 이것의 통합적 일관성에 도달하는 것은 ‘예외적 개인들’이다. 이 예외적 개인만이 그 사회 집단의 세계관을 최대한 발휘하며, 그들은 지적 측면에서는 과학자, 행동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혁명가, 문학(감각)에서는 작가들이다. 따라서 훌륭한 문학 작품

115) L. Goldmann, 앞의 책, 35쪽.

은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이며, 그 집단 의식은 예외적 개인의 의식 속에서 '감각적 명징성의 최대치'에 도달된다. 이 세계관(이데올로기)과 작품 사이에는 의미 있는 구조, 즉 동족성(同族性) 이론이 성립된다.

이러한 몇 가지 전제를 참고하고 승인한 자리에서 우리는 춘원의 「무정」을 살펴볼 것이다.

춘원의 「무정」은 갑자기 불쑥 솟아난 작품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쓴 많은 논설과 연속선상에 놓이는, 춘원의 문자 행위의 일환일 따름이다. 「개척자」도 그 사정은 같다. 「무정」은 「문학이란 하오」, 「농촌계발」에 이어 씌어졌고 또한 「오도답파기」 등의 앞에 놓이는 저술이다. 「무정」을 이와 같은 문자 행위의 총체성에서 검토하는 일은, 「무정」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일, 또는 문학사적 관련 내지 체계에서만 이해하는 일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빚을 것이다. 총체성 개념의 도입은 춘원의 경우 특히 요청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작가인 동시에 사상가이며 교사였고, 철학 전공의 지식인이었으며, 또한 상하이로 탈출하는 행동인이기도 하였다. 그를 문사로 국한시킨다 해도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 모든 장르에 걸쳐 각각 그 나름의 최고 수준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을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는 터이다. 춘원이 전개한 문자 행위 중의 하나가 「무정」이라는 이른바 문학 생산의 총체성 개념에 의지한다면 무엇보다도 「무정」 속의 세계관의 구조를 보다 명백히 하거나, 적어도 중요한 과제로 문제삼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 행위란 의미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 중 어떤 것은 지적 논리의 방식으로, 또 어떤 것은 감각적 명징성으로, 또는 실천으로서의 행동으로 각각 발현된다.

유학생으로서, 신문관 멤버로서, 또 총독부 기관지의 유력한 기고자의 하나로서 춘원이 소속된 여러 작은 공동체들은 그 나름의 집단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있을 것이다. 그 이데올로기란 논설의 차원에

서는 논리적 명징성으로, 「무정」 같은 작품에서는 감각적 명징성으로 드러나고 있을 것이다. 그가 소속된 그룹의 가능한 최대치의 세계관을 「대구에서」나 「무정」이 드러내고 있다면 그는 필시 예외적인 특출한 개인일 터이다. 달리 말하면, 그가 특출한 예외적 개인이기에 그를 포함한 계층의 의식의 최대치를 드러내었을 것이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의식이기에 그 집단 구성원 모두가 갖는 것은 아니다. 물론 논설과 소설이 동일한 세계관의 표현이라고는 하나, 철학적 저술과 논리적 저술 및 문학적 작품 사이에는 그 표현 구조에 차이가 있다. 문학은 장르라든가 독특한 감화적 어법을 통해, 말하자면 우회적 방법으로 그것을 드러낸다. 이 우회적 방법을 보다 선명히 조명해줄 수 있는 것이 그의 논설이다. 그의 논설과 「무정」을 총체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를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시대적 진취성

작품 「무정」이 과연 기념비적 작품이라면 첫째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생명적 진취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소속된 계층 의식이 상승 계층의 세계관임을 의미한다. 몰락 계층 혹은 조만간 몰락할 계층의 의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상승하거나 조만간 상승할 계층의 세계관의 최대치를 드러낸 것이 「무정」이 아니라면 「무정」의 문학사적 가치는 반감되거나 점차 소멸될 것이다. 그 진취성, 다시 말해 상승 계층의 생명력의 표현이 문학적 장치(우회로)에 의해 또는 문학적 감동력의 과잉에 의해 가려져 눈멀 경우에도 한편에 논설들이 지키고 있어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가령 「무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대목을 보자.

형식은 학생들 앞에서, 학교에 대하여 불만한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옳소, 정당한 일을 학교가 부정하게 여길 때에는 반항을 하여

도 옳소, 이러한 위험한 말도 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배학감이, 이번 학생의 소동도 형식의 충동이라 함이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다. 또 형식은 3, 4년급 학생들에게 은연중 문학을 장려하였다. 그래서 학생 중에는 혹 소설도 보며 철학에 관한 서적도 보며 잡지도 보는 자가 생기고, 그 중에는 가장 문학자인 체, 사상가인 체, 철인인 체하여 무슨 큰 생각이나 하는지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학생도 몇 사람이 생기고, 또 그러한 학생들은 다른 교사들을 아주 정신 생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유치한 사람들이라고 비웃기도 한다.

형식이 보기에 이는 학생들의 진보함이라 기쁜 일이언마는 다른 교사들 보기에 이는 학생들의 타락함이요 주체넘게 됨이었다.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 중에도 이회경 일파가 글자 적은 어려운 책을 들고 다니는 것과 그들의 발행한 잡지를 들고 다니는 것을 비웃었다.

—「무정」, 122~123쪽

장편 「무정」이 힘있는 소설이며 독자를 감동케 했음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터이다. 그 중의 하나가 이 작품 전체를 진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일 것이다. 즉 「무정」의 첫번째 구조층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시류적 풍속적 표층적 구조에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중심 내지 밑바닥을 흐르고 장차 상승 계층으로 되고자 하는 역사적 사회적 방향성에 관련되는 힘이다. 이 힘은 예외적 개인인 춘원을 매개로 하여 울려퍼지는 형국으로 되어 있다. 역사의 나아갈 방향성에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진취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승 계층의 세계관이며, 또한 그 세계관의 최대치의 드러남인 것이다. 그가 드문 예외적 개인이기에 이것이 가능하였다. 그가 예외적 개인이며 상승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다음 장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동경서 돌아온 지가 벌써 4, 5년이니, 매삭 10원씩만 저축하였더라도 5, 6백 원의 저축은 있으려마는 형식은 아직도 이 생활을 자기의 진정한

생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임시의 생활, 준비의 생활로 여기므로 몇 푼 아니되는 월급을 저축할 생각은 없어 제가 쓰고 남는 돈은 가난한 학생에게 나누어주고 말았다. 그러나 형식은 책을 사는 버릇이 있어 매삭 월급을 타는 날에는 반드시 일한 서방에 가거나, 동경 마루튼 같은 책사에 4, 5원을 없이 하여 자기의 책장에 금자 박힌 것이 붙는 것을 유일한 재미로 여겼었다.

남들이 기생집에 가는 동안에, 술을 먹고 바둑을 두는 동안에, 그는 새로 사온 책을 읽기로 유일한 벗을 삼았다. 그래서 그는 동배간에도 독서 가라는 칭찬을 들었고 학생들이 그를 존경하는 또 한 이유는 그의 책장에 자기네가 알지 못하는 영문·독문의 금자 박힌 것이 있음에서였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 조선 사람의 살아날 유일한 길은, 우리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에 가장 문명한 모든 민족—즉 일본 민족만한 문명 정도에 달함에 있다 하고 이러한에도 우리 나라에 크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생각하기를, 이런 줄을 자각한 자기의 책임은 아무쪼록 책을 많이 공부하여 완전히 세계의 문명을 이해하고 이를 조선 사람에게 선전함에 있다 하였다. 그가 책에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재주 있는 학생을 극히 사랑하며 힘있는 대로 그네를 도와주려 함도 실로 이를 위함이다.

—「무정」, 51~52쪽

「무정」의 주인공 이형식은 작가 춘원처럼 예외적 개인이다. 그 관계는 교사 이형식과 경성학교 학생 사이에 정립된다. 이형식은 도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교사이다. 도쿄 유학을 한 교사라고 모두 이형식과 같지는 않다. 경성학교의 10여 명 교사 중, 인격 파탄자이며 영채를 강간하는 데 한몫 킼 악명 높은 배학감도 도쿄 유학생이며 더구나 도쿄 고등사범 출신이었다. 형식이 상승 계층 의식을 대표한다면 배학감은 몰락 계층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한쪽은 조금이라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이를 전달하고자 했고 한쪽은 기생집을 찾아다니기에 정

신이 없다. 이형식과 학생과의 관계는 시대의 방향성에 직결될 진취성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이러한 진취적 자발적 관계는 논설의 세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현실적 관계로 드러난다. 「대구에서」에서는 한일합방 이전에 교육받고 청년이 된 국내 지식인 계층의 이분화로 그 관계가 설정된다. 이들 계층은 명예심도 자부심도 가질 수 없고 직업도 없는 허무주의자가 되어 집단적으로 은행 강도가 된 부류와 그렇지 않고 그 속에서도 자기 나름의 지식과 재능을 개발하여 식민 통치하에서나마 온건하게 살아가는 계층으로 나뉜다. 전자는 매우 위험하고도 난처한 존재여서 통치자에게는 고민거리이기에 어떤 각도에서는 몰락 계층이며, 저급하고 고상하지 못한 직업에나마 종사하는 계층은 상승 계층으로 볼 수가 있다. 교육받은 위험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평범한 계층과의 관계는 「농촌계발」에서는 지도자 김일의 계층 의식과 그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의 관계로 정립되며, 「신생활론」에 와서는 인위적 변화(교육과 혁명)와 무의식적 변화의 관계로 나타난다. 유교라든가 예수교 자체를 비판할 힘이 없는 춘원이 조선에서의 종래의 인습적인 것, 부정해야 할 것을 전부 유교 및 기독교에 뒤집어씌운 흠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는 기독교 자체, 유교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결부된 조선의 유교나 기독교를 공격하였다. 여기서 그의 사상 비판의 미숙성을 볼 수 있거니와, 요컨대 그는 시대의 진취성을 상승 계층 의식과 몰락 계층 의식의 단순한 이분법의 논리로 파악하였다. 그가 흑백 논리로 치닫게 된 까닭도 이 단순성에서 온다.

우리는 그가 대립시켜놓은 상승 계층 의식과 몰락 계층 의식이 식민지 통치자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들어, 손쉽게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이형식이 남들이 모두 기생집을 쏘다닐 때 혼자만이 깨어서 일서日書, 영서英書 등을 사들여 지식을 습득하고 학생들을 깨우치는 일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 통치자들에게 봉사하는 꼴일 수 있다. 교육받은 대구 청년들의 강도 행위를 두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고상한 직

업은 일본인들이 맡고 하급의 사무직이나 얻어 고분고분 자기 실력을 쌓아가는 쪽을 상승적 계층이라 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두고 상승 계층 의식이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올바른 의미에서의 진취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은 비단 춘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전 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의식을 괴롭히는 유행과도 같은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도산 사상(준비론)이나 단재 사상(투쟁론)이나에 관련되는 것이어서 간단히 대답하기 어렵다.

3·1운동의 거대한 봉우리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2천만 동포와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 선다면 바야흐로 대두되기 시작하는 초기의 타협론이야말로 당시로서는 시대적 진취성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작품 「무정」은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다른 여러 논설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 논설의 구조와 작품 속의 구조가 시대적 진취성의 측면에서 마주보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무정」은 문학 작품이기에 다른 논설의 논리적 명징성이나 주장이 시효를 상실한 후에도 문제적인 측면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작가 춘원이 상승적 계층의 세계관의 가능한 최대치를 포착한 예외적 개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은 상승적 계층의 가능한 최대치의 이데올로기를 문학적 장치, 즉 감각적 명징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감정 혹은 감각적 명징성을 우리는 계몽적 의식 또는 교사·생도 간의 문제라 불러도 될 것이다. 이 의식은 저 시대적 진취성보다 훨씬 깊고 어둡고 본질적인 것이다. 「무정」을 이루는 첫번째 구조층, 곧 표층적 구조가 시대적 진취성이라면 그것은 논설문 차원의 구조에 해당된다. 그 중간적 구조, 다시 말해 두번째 구조층은 바로 이 교사·생도 관계라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문학 작품만이 갖는 독자적 감응의 영역이다. 「무정」의 독특한 힘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논설의 차원이면서 문학적 감응력을 동반한 것이어서 작품에 힘을 주게 된다.

사제 관계의 견고성

이 두번째 구조층은 몇 가지 유형으로 「무정」 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교사·학생의 관계 구조이다.

「무정」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이형식, 박영채, 김선형, 신우선, 김병욱 등으로서 작품 결말 부분에 한꺼번에 등장한다. 방계 인물로는 이형식의 하숙집 노파, 경성학교 배학감, 교주 아들 김현수, 고아로 김선형의 집에서 자란 윤순애, 박영채가 형님이라 부르는 평양 기생 계월화, 아우라 부르는 어린 기생 계향이, 영채의 주인인 노파, 김병욱의 오라버니 김병국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형식이 가르치는 경성학교 4학년생 이회경 등 다수이다.

이들 인물의 관계 구조가 한결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즉 교사·학생 관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은 주목된다. 이것이야말로 「무정」을 「무정」이게끔 하는 '의미 있는 구조'의 하나에 해당된다. 이를 세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형식과 선형의 관계이다. 형식은 소설 첫 장면에서 선형의 영어 가정 교사로 부임한다. A, B, C부터 가르치는 것이다. 「무정」의 서두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조차 띠고 있다. 「무정」을 두고 교육소설이라 부를 수 있는 조건도 이에 관련된다.¹¹⁶⁾ 그러나 형식과 선형의 사제 관계는 매우 피상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 김장로 집안의 당초 목적이 이형식을 가정 교사로 초빙한 것이 아니라 사뭇감으로 고른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형식도 선형을 그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약혼식 이후에는 오히려 선형 쪽에서 형식의 인격을 의심하게까지 된다. 작품의 제96, 97회 부분에서 이 점이 첨예화된다. 이런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사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제 117회 이후, 즉 삼랑진의 여관방에서이다. 그것은 이 소설의 대단원이기도 하다. 부부가 될 약혼자 사이의 갈등조차도 사제 관계 회복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정」의 특성이자 이 시대의 가능성인 셈이다.

둘째, 형식과 하숙집 노파의 관계이다. 하숙집 노파는 그야말로 무식한 구세대의 여인이다. 젊었을 때 권세가의 소실로 호강하다 젊은 하인배와 간통하여 쫓겨난 여인이다. 사고무친인 고아 출신의 이형식과 같은 처지의 노파 사이를 잇는 끈은 단순한 물질적 관계에 멈추지 않는다. 별레보다 못한 인간 이하의 노파라고 욕하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기대는 것은 사제 관계 때문이다. 그 매개물은 지식이다.

노파가 형식을 위로하는 말은 대개는 형식이가 노파를 위로하던 말과 같았다. 노파는 이 세상에 친구도 없고 글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지식을 얻을 데는 형식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노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대개 형식의 위로하는 말에서 얻은 것이다. 형식의 말은 노파에게 대하여는 철학이요 종교였다. 그러나 노파는 이것을 형식에게서 얻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것은 제 속에서 나오는 지식이거니 한다.

—「무정」, 82쪽

셋째, 월화와 영채의 관계이다. 평양에서 기생이 된 영채(기생명 월향)에게는 형님으로 부르며 존경하는 선배 기생 월화가 있다. 월화는 지조 있는 평양 기생의 전형으로서, 허다한 평양 건달들을 옷 입은 허수아비로 조소하며,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없음을 탄식한다. 당세의 사나이 추정 이갑이나 유동열 같은 사나이는 망명했고, 친일파 줄장부들만이 기생방을 출입하는 시대였던 것이다. 월화가 사나이다운 사나이

116) G. 루카치는 『소설의 이론』에서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피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와 켈러의 「푸른 하인리히」를 이 용어로 묶었다(김윤식 옮김, 「부록」, 『소설의 이론』, 삼영사, 1977 참조). 교육소설Erziehungsroman과 보통 말하는 교양소설Bildungsroman의 차이를 말하기는 어렵다. 또 교양소설의 범위를 피테를 두고 다른 곳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의 교양소설의 개념은 그들 정신사와 결부된 하나의 독특한 양식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식, 『한국 현대소설 비판』(일지사, 1981) 중 「교양소설의 본질—루카치의 소설론 비판」 항목을 참조할 것.

로 존경하는 인물은 평양 대성학교 교장 함상모(모델은 안창호)뿐이다. 월화는 영채를 데리고 함교장의 연설을 들으러 다닌다. 함교장의 연설과 사나이다운 모습이야말로 월화가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월화에겐 못된 건달 김윤수가 있었다. 어느 날 월화는 영채에게 옥지환을 남기고 대동강에 투신 자살한다. 함교장의 감화를 받은 월화는 그 감화를 영채에게 이어주었다. 영채의 스승은 월화였다. 영채가 기생 생활 칠 년 동안 수절하며 형식을 기다린 것도 월화의 가르침에 힘입은 것이었다.

넷째, 병욱과 영채의 관계이다. 「무정」의 사제 관계가 작품 구성의 큰 전환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병욱의 등장에서이다. 이형식은 경성학교 영어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이 그의 직업이자 취미이며 인생의 전부였다. 아직 독신이며 고아였기에 그의 인간 관계는 학교와 하숙집뿐이다. 그가 학생만을 사랑하는 일과 사제 관계의 지속·강화는 오직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만이였다. 그러기에 교양소설 혹은 발전소설이 아니라 교육소설이라 불릴 만하다. 그러나 영채와 이형식의 관계가 주축으로 되어 있는 「무정」이기에 영채와 사제 관계를 이룩한 구조야말로 이 소설을 교육소설로 일관케 하는 핵심일 것이다. 그것이 병욱의 등장이다.

병욱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무정」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갈라진다. 「무정」의 전반부는 불과 사일 간이다. 형식이 김장로의 집에 가정 교사로 간 첫날 밤에 영채가 찾아왔고, 이틀 후에 청량사에서 영채 강간 사건이 벌어졌고, 그 이튿날 유서를 남긴 영채가 대동강에 투신 자살하고자 떠났다. 한편 형식은 영채를 찾아 평양으로 갔고 시체도 찾지 못하고 서울에 돌아와서는 배학감의 음모로 애제자들의 배척을 입어 학교에 사표를 냈다. 영채가 죽었으므로 그는 부담감 없이 선행과 약혼을 한다. 여기까지가 「무정」의 전반부이며 그 기간은 6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다. 이 소설의 후반부를 이으려면 영채 이야기를 계속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가장 이광수다운 구성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해 영채를 어떻게 이끌어내어야 전에 없는 새로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까. 이 중요한 물음에서 작가는 유려한 대답을 찾아내었다. 작가는 여기서 큰 모험을 한 것이다. 가장 근대소설답지 않게, 즉 전형적 고대소설의 방식인 “각설……” 하는 전환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제는 영채의 말을 좀 하자. 영채는 과연 대동강의 푸른 물결을 헤치고 용궁의 객이 되었는가.

독자 여러분 중에는 아마 영채의 죽은 것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신 이도 있을지요, 또 고래로 어떤 이야기책에 나오듯 늦도록 일점 혈육이 없던 사람이 아들 아니 낳은 자 없고, 아들을 낳으면 귀남자 아니 되는 법 없고 물에 빠지면 살아나지 않는 법 없는 모양으로, 영채도 아마 대동강에 빠지려 할 때에 어떤 귀인에게 건짐이 되어 어느 암자의 승이 되어 있다가 장차 형식과 서로 만나 즐겁게 백년가약을 맺어, 수부귀다남 자하려니 하고, 소설 짓는 사람의 좀된 솜씨를 넘겨보고 혼자 웃으신 이도 있으리라.

혹 영채가 빠져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영채가 평양으로 간 것을 칭찬하신 이도 있을지요, 빠져 죽을 까닭이 없다 하여 영채의 행동을 아깝게 여기실 이도 있으리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독자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바와 내가 장차 쓰려 하는 영채의 소식이 어떻게 합하며 어떻게 틀릴지는 모르지마는, 여러분의 하신 생각과 내가 한 생각이 다른 것을 비교해보는 것도 매우 흥미 있는 일일 듯하다.
—「무정」, 149쪽

이런 대목이 「무정」 속에 끼여 있다는 것은 특기해둘 일이다. 톨스토이는 물론, 크로포트킨의 『빵의 약탈』, 루소의 『참회록』,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소설도 읽은 작가가 이런 투의 말을 소설에다 삽입했다는 것은 그의 소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즉 그의 작품이 우리 고대소설의 연장선상에 서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요컨대 작가는 독자들의 여러 억측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방식을 열어보

이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병욱의 등장이다.

영채가 대동강에 투신 자살키 위해 평양행 기차에 몸을 신자 도쿄 유학생이며 음악을 전공하는 황주의 부잣집 딸 김병욱을 만난다. 그녀는 여름 방학으로 귀향하는 길이었다. 영채의 신세타령을 들은 병욱은 대번에 그녀의 남성다운 성품으로 또 동정심으로 영채를 교육하기 시작한다. 병욱은 도도한 입심과 선각자다운 목소리로 열심히 영채를 설득한다.

첫째 영채씨는 속아 살아왔어요. 이형식이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 하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왔어요. 부친께서 일시 농담삼아 하신 말씀 한 마디 때문에 영채씨는 7, 8년 헛된 절을 지킨 것이외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에 허락도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어요?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 영채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나쳤지요.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함니까.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이지요.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삽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 지아버가 어디 있겠어요. 하니까 영채씨의 과거사는 꿈입니다. 이제부터 참 생활이 열리지요. —「무정」, 154쪽

물론 병욱의 이러한 교육 방식은 논리에서 온 것이기보다는 차라리 서글서글한 그녀의 인간성에서 오는 것이며, 또한 영채를 감싸주는 병욱 가족들의 사랑에서 마침내 달성되거나, 요컨대 「무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채의 구제 방식이 사제 관계로의 전환에서 가능했음은 분명한 일이다. 작가 춘원이 독자의 억측을 비웃고 도도히 내세운 해결 방식이 이것이었다.

「무정」을 읽고 나면 작가가 애초 영채와 형식의 관계만을 주축으로 쓰고자 작정했다가 얘기가 벌어져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게 된다. 일찍이 작가는 「무정」을 쓰게 된 직접 동기가 “매일신보사에

서 신년 소설 하나를 쓰라, 그 제호를 전보하라는 전보를 받고, 쓰다 말고 쓰다 말고 하던 원고 몽땅이어서 영채에 관한 원고를 내어서 동기 방학 동안에 불면불휴不眠不休로 약 70회분을 써 보낸 것”(「다난한 반생의 도정」, 452쪽)이었다고 적은 바 있다. 그러기에 선행이라든가 병욱, 신우선 등의 설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무정」의 당초 의도는 형식과 영채의 순결성, 그들의 진취성을 ‘교육을 통해 눈뜨게 함을’ 겨냥한 것이었다. 가장 밑바닥에 놓인 영채의 기구한 운명은 이 작품 앞에서부터 자세히 묘사된다. 그것은 고대소설 주인공의 기구한 운명 그대로이다. 아버지 박진사가 감옥으로 가자 외딸인 어린 영채는 친척 집에 가지만 구박에 못 견뎌 남장하여 도망을 쳤고 동학당에 붙들려 봉변당하기 직전에 탈출을 했고, 몸을 팔아 기생이 되었으나 그 돈을 사기당했던 것이다. 영채의 타인과의 만남은 계속 하강적 상태였으나, 병욱을 만나자 비로소 상승적이 되어 구원의 빛으로 되었다. 구원은 새로운 지식이어야만 했던 것이다.

다섯째, 형식과 모든 인물과의 관계이다. 「무정」의 결말에 감격한 예로는 일찍이 작품 발표 당시 독자 김기전의 「무정 122회를 독讀하다가」(『매일신보』, 1917. 6. 15~6. 17)의 견해를 들 수 있다. 김기전은 소설이란 감동과 교훈을 주어야 하는 것이며 「무정」이야말로 그러한 소설인데, 그 중에서도 “데일이이회 이곳이야말로 본소설의 정신이 모인 중심이요 본소설의 생명이요 이상”¹¹⁷⁾이라 보았다. 이 대목은 삼량진 수해 장면에서의 다섯 사람의 결심을 보이는 곳이거나, 이에 대해서는 독설가 김동인도 시인하였다.

여기서 삼량진 수해 만난 사람들에게 대한 민족애로써 4인의 감정을 융화시킨 점은 용하다. [...] 이 장면에서만은 이런 문제가 아니면 도저히 서로 한좌석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담소를 못할 것으로서 춘원의 전 작품

117) 김윤식, 『근대 한국 문학 연구』(일지사, 1973), 87쪽.

을 통하여 유일한 '적절한 삽입'이었다.¹¹⁸⁾

이 끝 장면의 처리 방법은 과연 김동인의 지적 그대로이다. 병욱에게 구제되어 그 제자가 된 영채가 병욱과 더불어 음악을 공부하러 일본으로 가는 도중 차간에서 미국 유학차 떠나는 이형식·김선형을 한꺼번에 만났으나, 선형의 오해는 좀처럼 풀리지 않으며 형식과 영채 사이도 서먹서먹하였다. 마침 삼랑진 수해로 기차가 불통되어 승객은 여관으로 들게 되고, 네 사람은 수재민 구호에 나서 의연금을 거둔다. 수해 취재차 내려온 기자 신우선도 합석한다. 수해의 원인을 따지고 민족의 앞길을 밝히기 위해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자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소한 오해나 감정은 초극된다.

그러나 이 장면의 구성을 좀더 살펴보면 이형식을 중심으로 하여 선형·영채·병욱이 모두 사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일동의 정신은 긴장하였다. 더구나 영채는 아직도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제하나?” 함은 참 큰 문제였다.

이러한 큰 문제를 논란하는 형식과 병욱은 매우 큰사람같이 보였다. 영채는 두자미杜子美, 소동파蘇東坡의 세상을 근심하는 시귀를 생각하고, 또 오 년 전 월화와 함께 대성학교장의 연설을 들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때에는 아직 나이 어려서 분명히 알아듣지는 못하였거니와 “여러분의 조상은 결코 여러분과 같이 못생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할 때에 과연 지금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들이라 하던 생각이 난다.

영채는 그 말과 형식의 말에 공통한 점이 있는 듯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번 더 형식을 보았다. 형식은,

“웁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118) 『김동인 전집』 6(삼중당, 1976), 95쪽.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하고 형식은 입을 꼭 다문다.

세 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친다. 형식은 한번 더 힘있게,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고 세 처녀를 끌고루 본다.

세 처녀는 아직도 경험하여보지 못한 듯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쭉 끼쳤다.

형식은 한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였다.

“우리가 하지요!”

하는 대답이 기약하지 아니하고 세 처녀의 입에서 떨어진다.

네 사람의 눈앞에는 불길이 번쩍이는 듯하였다. 마치 큰 지진이 있어서 온 땅이 떨리는 듯하였다. 형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앉았더니,

“웁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오라고, 문명을 얻어오라고……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달라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하고 조끼 호주머니에서 돈지갑을 내어 푸른 차표를 내어들면서

“이 차표 속에는 저기서 덜덜 떠는 저 사람들…… 아까 그 젊은 사람의 땀도 몇 방울 들었어요…… 부디 다시는 이러한 불쌍한 경우를 당하지 않게 하여달라고요.”

하고 형식은 새로 결심하는 듯이 한번 몸과 고개를 흔든다.

세 처녀도 그와 같이 몸을 흔들었다. 이때에 네 사람의 가슴속에는 꼭 같은 ‘나 할 일’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너와 나라는 차별이 없이 온통 한 몸, 한마음이 된 듯하였다.

선형도 아까 영채가 “제가 물 끓여올게요” 하고 자기의 손목을 잡아 앉

힐 때부터 차차 영채가 정다운 생각이 나고 또 영채가 지은 노래를 셋이 합창할 때에는 영채의 손을 잡아주도록 정다운 생각이 나고 또 지금 세 사람이 일제히 “우리지요!” 할 때에 더욱 영채가 정답게 되었다.

그리고 형식이 지금 병욱과 문답할 때에는 그 얼굴에 일종 거북하고 엄숙한 기운이 보여 지금껏 자기가 그에게 대하여 하여오던 생각이 죄송한 듯하다(강조—인용자). 자기는 언제까지 형식과 영채를 같이 사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새로이 형식과 영채의 얼굴을 보았다.

—「무정」, 205~206쪽

이 사제 관계의 빈틈없는 확실성이야말로 「무정」이 갖추고 있는 강점이다. 김동인은 ‘민족애’로 이 장면을 마무리지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심층적 고찰이라 보기 어렵다. 대단치도 않아보이던 이형식이 대단한 인격자로 우람하게 세 처녀 위에 군림함으로써 비로소 네 사람의 감정은 하나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란 어렵지 않다. 약혼 후 형식이 기생방에 출입한다는 소문을 들은 선형은 형식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광대배가 나온 형식의 얼굴 못남까지 불만이었다(제116장). 또한 병욱의 가르침을 받은 후 영채는 그가 이형식이라는 허깨비를 그리워한 것이 가소로웠다. 이 지경에 이른 형식의 처지가 민족애로 회복되기에는 미비하다. 민족애는 다만 이형식이 교사의 자격을 회복함에 한 도구가 되었을 따름이다. 이형식이 처녀 앞에 교사의 모습으로 군림하는 일이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세 처녀는 “몸에 소름이” 끼쳤으며, “세 처녀는 아직도 경험하여보지 못한 듯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이 소름 끼치는 감동이야말로 장편 「무정」의 진취성이자 순진성의 한 속성이다. 그것은 오직 교사 의식의 회복에서 가능하고 또 달성되는 것이었다. 춘원에 있어, 그리고 이 시대에 있어 가장 정결한 것, 신성한 것은 오직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만 있었음을 이 작품이 증거하고 있다. 「무정」이 기념비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만이 순수하고,

그 관계만이 진정한 관계이며, 그것만이 민족과 시대의 운명이며 또한 개인의 운명조차 된다는 사상, 이것이 「무정」이 가진 힘 중의 힘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언제나 이형식 내지 작가 춘원이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된다. 당시의 독자들이 대체로 신교육에 눈떴거나 눈뜨려 하는 상승 계층이어서 교사·학생 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기에 이 구조는 견고하고 두터운 층을 이루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결성—누이 콤플렉스

「무정」의 세번째 구조층은 순진성 혹은 정결성이다.

작가 자신의 말대로 민족주의라든가 자유주의를 내세웠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런 주의는 당시 만연하던 것이며, 따라서 하나마나한 주장일 터이다. 실상 춘원은 미션 스쿨인 메이지 학원에 다닐 때부터 청교도적인 결벽성이 있었다. 물론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러하였다. 순진성·결벽성이란 단순성과도 통하는 것이어서 ‘소년적’인 성격이라 볼 수도 있다. 「무정」 속에 배어 있는 이 순진성이 휘황하게 작품을 빛내고 있음은, 이 작가가 참으로 당시 상승 계층의 있을 수 있는 ‘의식의 최대치’를 포착한 드물게 보는 예외적 개인임을 입증한 것이다. 순진성, 소년적 단순성이야말로 당시 젊은 계층의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이형식이 선형을 만나 선형을 ‘자기의 누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제3장)과, 평양에 가서 칠성문 밖 박진사 무덤을 안 내해준 어린 기생 계향을 “내 누이입니다” 하고 아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장면(제64장)을 볼 수 있다. 이 ‘누이’라는 이미지와 순결성은 동일한 것이며 또한 생명 의식과도 같이 정신을 양양케 하고 감정을 고조케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곧 삶의 환희로 고양되며, 밤 기차 속의 웅장한 우주론의 전개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순결함의 첫 발현은 형식이 선형과 순애를 가르치던 두번째 날에 나타났다. 영채의 일로 도무지 견잡을 수 없이 뒤숭숭한 마음으로 김장로집에 영

어를 가르치려 간 형식은 두 처녀를 보자 이상한 감흥에 빠진다.

형식은 두 처녀를 보매 얼마큼 뒤송송하던 생각이 없어지고 적이 정신이 쇠락한 듯하다. 형식은 고개 숙인 두 처녀의 까만 머리와 쪽진 서양 머리에 꽃은 널따란 옥색 리본을 보았다. 그리고 책상에 짚은 두 처녀의 손가락을 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슬쩍 불어 지나갈 때에 두 처녀의 몸과 머리에서 나는 듯 마는 듯한 향내가 불려온다. 선형의 모시 적삼 등에는 땀이 배어 하얀 살에 착 달라붙어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 붙은 자리가 넓었다 좁았다 한다.

순애는 치마로 발을 가리우느라고 두어 번 몸을 들먹들먹하여 밑에 깔린 치마를 뻗다. 선형은 이마에 소스락소스락하게 구슬땀이 맺히어 이따금 치마 고름으로 가만히 씻고는 손으로 책상 밑에서 부채질을 한다.

형식은 아침부터 괴로움으로 지내오던 마음속에 일점 향기롭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들어움을 깨달았다.

여자란 매우 아름답게 생긴 동물이라 하였다. 어깨의 둥그스름한 것과 뺨의 불그레한 것과 머리카락의 길고 까만 것과, 또 얇은 태도와 웃고름 맨 모양과—그 중에도 널찍한 적삼 고름이 차차 좁아오다가 가운데서 서로 꼭 움켜매어 위로 간 코는 비스듬히 왼편 가슴을 향하고 아래로 간 고름의 한 끝이 훌쩍 날아오른 팔꿈치를 지나간 양이 더욱 풍정이 있다.

이렇게 두 처녀를 보고 앉았으면 말할 수 없는 향기로운 쾌미가 전신에 미만하여 피 돌아가는 것도 극히 순하고 쾌창한 듯하다.

—「무정」, 55쪽

형식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쾌미가 전신에 스며들게 한 요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일단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언뜻 보면 두 처녀에게서 풍기는 감각적 현상, 다시 말해 성적 매력이 젊은 이형식이라는 남성을 자극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쉽다. 그러한 사실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겠지만, 이보다 더 깊고 원초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형식이 두 처녀를 '누이'로 보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형식은 선형을 자기의 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형식이 남의 처녀를 대할 때마다 생각하는 버릇이니, 형식은 처녀를 대할 때에 누이라고밖에 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무정」, 18쪽)이라는 대목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다. 이형식에게 누이 콤플렉스는 순결성의 상징이다. 어린 기생 계향을 '내 누이'라 말하는 대목에서는 이 사실이 더욱 고조된다. 이 누이 콤플렉스는 고아로 자란 작가 춘원의 전기적 사실에 깊이 뿌려 내려진 것이어서 그 어느 감정보다 감정의 추가 깊이가 내려간 것이다. 뒤에 자세히 논급되겠지만, 작품 「무정」은 춘원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단순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작품 속의 대목은 그대로 작가 이광수의 그것이며, 이형식의 신선함의 상징으로서의 누이 콤플렉스는 그대로 이광수의 누이 콤플렉스인 것이다.¹¹⁹⁾

형식은 친누이 하나와 종매가 2, 3인 있다. 그러나 친누이는 그 시가를 따라 함경도에 가 있으므로(친누이 애경이 결혼한 것은 1910년 3월 이전 임—인용자) 이래 사오 년 간에 만나본 적이 없고, 방학 때를 타서 고향에 돌아가면 누구보다도 종매 세 사람을 찾았다. 그 종매들은 오래간 만에 만나는 종형을 잘 사랑하였다.

그 중에도 형식보다 나이 어린 두 종매는 형식을 만날 때와 떠날 때에 늘 울었다. 시부모 앞이라 마음대로 반가운 정을 표하지는 못하나 처음 만나서 “오빠” 하는 소리와 밥상에 놓은 국에 닭고기를 많이 넣는 것으로 넉넉히 그네의 애정을 알았다. 형식이 방학에 고향을 돌아가는 것은 실은 이 두 종매에게 “오빠”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기 위함이었다.

—「무정」, 113쪽

119) 이 책 제1부 제2장 '삼종제 이학수' 참조.

이러한 누이 콤플렉스는 춘원 문학의 해명에 빠뜨릴 수 없는 주춧돌 가운데 하나이다. 열한 살에 고아가 된 춘원이 동가식서가숙하면서도 찾아갈 곳은 조부집과 재당숙집이었다. 조부집에는 친누이 애경이 있었으나 원체 가난하여 거기에 깰 수 없었다. 따라서 그가 약간 마음이 놓이는 곳은 재당숙집이었다. 거기엔 종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름 간다 구름 간다 [...]”라는 시가를 그들 종매에게 배우고, 그 분위기에 젖는 일이 그의 유년 시절에서는 가장 편안한 일이었다. 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여성이지만 오빠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도 남성도 아닌 중성 같은 존재이다. 여성이되 범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것, 여성이되 가장 잘 보호해야 할 존재, 오빠에게는, 자기가 아니고는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며 그것은 피의 명령이자 윤리의 명령이기도 하다. 누이의 존재가 정결함·순수함의 상징인 것은 이때문이다. 그것은 오빠라는 존재의 소년적 순수성과 정비례하는 것이어서, 마치 동정과도 같다. 이 관념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하나는 (영채의) 구도덕으로 대표되는 절절을 지킨다는 유교의 으뜸 덕목에 연결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선형의) 기독교 특히 한국이나 일본 등에 들어온, 미국·캐나다 계통 기독교의 청교도주의적 덕목(술·담배도 배격하는 지나친 청교도적 사상)인 순결성에 연결되는 것이다. 춘원이 여러 논설에서, 특히 「혼인론」, 「자녀중심론」 등에서 그토록 구도덕인 절개 문제를 비인간적이라 하여 공격했고 또한 기독교 자체라든가 유교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한국적 기독교, 한국적 유교를 맹렬히 비난 비판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의 으뜸 덕목인 절개와 기독교의 으뜸 덕목인 청교도적인 것을 은밀히 연결시켜놓은 것이 「무정」의 윤리 감각이다. 「무정」의 심층 구조에 깔린 이 두 덕목의 자연스런 결합이야말로, 이른바 순결성·정결성의 정체이다. 그것은 작가 춘원의 소년적 혹은 청년적 순진성이자 배움의 길에 있는 일반 독자들의 그것이기도 하다.

앞에서 인용한, 이형식이 선형과 순애를 대하고 ‘말할 수 없는 쾌

미’를 느끼는 것이 단순한 성적 흥분에 연유된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이로써 해명되었을 줄로 믿는다. 물론, 그 말할 수 없는 쾌미는 두 처녀의 육체적 조건의 음미,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에 촉발되어 일어났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이 우주론으로 확대되었음은 주목을 요한다. 이형식은 말할 수 없는 쾌미에 도달하기 전의 단계에 예수의 초상을 본 바 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고상을 보면서, 이형식은 인류를 불쌍히 여겨 모든 원수를 용서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도 인자(人子)요,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옆구리를 찌르는 자도 인자이며, 그를 구경하는 자도 죽임당한 자의 옷을 제비뽑는 자도 인자이다. 이 생각은 그대로 배학감에게도, 영채에게도, 영채를 노리는 짐승 같은 무리들에게도 연결된다. ‘다만 알 수 없는 것은 어떠한 힘’이 작용하여, 악한으로 선인으로 광대로 또 이도령으로 춘향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 어떤 힘을 초월한다면 모두가 사해동포가 아니겠는가. 이형식은 생각이 이에 미치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불쌍해졌으며, 그들을 용서해주고 싶었다. 이 생각 다음 차례에 두 처녀를 대했고 두 처녀의 감각적 느낌에 의해 ‘말할 수 없는 쾌미’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는 우주론이 펼쳐진다. 즉, 그가 김장로의 집을 나왔을 때, 그는 그의 머리속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하나가 열람을 번개처럼 깨닫는다. 김장로집을 나서자 백운대 위로 구름장이 떠돌고 서늘한 바람이 후끈후끈한 그의 땀을 스쳤다.

형식은 아까 김장로의 집에 들어갈 때와는 무엇이 좀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천지에는 여태껏 자기가 알지 못하던 무엇이 있는 듯하고, 그것이 구름장 속에서 번개 모양으로 번쩍 눈에 보였는 듯하다. 그리고 그 번개 같이 번쩍 보인 것이 매우 자기에게 큰 관계가 있는 듯이 생각된다.

형식은 그 속에—그 번개같이 번쩍하던 속에 알 수 없는 아름다움과 기쁨이 숨은 듯하다고 생각하였다.

형식은 가슴속에 희미한 새 희망과 새 기쁨이 일어남을 깨달았다. 그리

고 그 기쁨이 아까 선형과 순애를 대하였을 때 그녀의 살 냄새와 웃고름과 말소리를 듣고 생기던 기쁨과 근사하다 하였다. 형식의 눈앞에는 지금껏 보지 못하던 인생의 일방면이 벌어졌다. —「무정」, 57쪽

누이 콤플렉스가 순결성·순수성에 근거한 것이며, 그것은 또한 새로운 세계의 우주관을 여는 열쇠임을 위의 구절이 잘 말해준다. 세상 살이, 가령 명예와 재산과 법률, 도덕, 학문, 성공 등에 연연하는 한, 순진성이 가려져 그는 갈팡질팡한다. 이를 초극하는 방식은 순진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형식은 학문에, 명예에, 성공에, 교사 노릇에 열중하여 자주 순진성을 잃었다. 영채로 말미암아 그 순진성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순수성과 순진성은 후자가 무력하다는 점에서 구분되며, 정결성은 이와는 또 다른 차원에 속한다). 물론 그는 선형·순애의 감각적 현상에 촉발되어 순진성에 눈뜨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영채의 돌연한 출현, 영채의 고통스런 조건(기생)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예수 화상을 통한 눈뜸, 선형·순애를 통한 눈뜸, 교통거리에서 본 삼각산의 새로운 인식에 대한 눈뜸은 아직도 이형식에겐 “무엇인지 분명히 이름지을 줄을 모르는” 그런 것이었다. 그것을 계속 지키고자 한 점이 「무정」을 때묻지 않게 한 힘이었다.

이 누이 콤플렉스는 평양에서 계향을 만났을 때 더욱 고조된다. 영채를 형님이라 부르는 어린 기생 계향의 인도를 받아 영채의 시체를 찾다가 결국 포기한 이형식은 칠성문 밖 공동 묘지에 있는 박진사 부자의 무덤을 찾는다. 그날 밤차로 서울로 오면서 이형식은 놀랄 만한 우주관을 펼쳐놓는다. 그것은 순진성의 회복이며, 그 회복에 도달했을 때의 우주관이였다. 그가 이런 순수 상태(우주관)에 도달한 것은 영채가 당한 겁간 사건, 그로 인한 영채의 자살 소동, 그로 인해 자신의 무능력·속수무책 상태에 절망하는 일, 영채의 시체를 찾아 평양으로 간 일 등등 실로 며칠 간에 빚어진 세상일에 분노하고 저주한 직후에 일어났다. 계향을 만나고, 은인인 박진사의 무덤을 보는 일을 통해 이형

식의 마음은 순진성을 회복하기에 이른다. 그 순진성을 회복하자 그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이형식의 생명감이자 작품 「무정」의 생명감이기도 하다.

평양서 올라올 때에 형식은 무한한 기쁨을 얻었다. 차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사랑을 끌고, 모두 다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듯하였다. 차바퀴가 궤도에 갈리는 소리조차 무슨 유쾌한 음악을 듣는 듯하고 차가 철교를 건너갈 때와 굴을 지나갈 때에 나는 소요한 소리도 형식의 귀에는 웅장한 군악과 같이 들린다.

형식은 너무 신경이 흥분하여,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창을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어스름한 달빛에 어렴풋하게 보이는 황해도의 연산을 보았다.

산들은 물묵(水墨)으로 그린 묵화 모양으로, 골짜기가 없고 나무나 들도 없고 모두 한빛으로 보인다. 달빛과 밤빛과 구름빛을 합하여 커다란 붓으로 종이 위에 형세 좋게 그린 그림과 같다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식의 정신도 실로 이와 같았다.

형식의 정신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욕망과 기쁨과 사랑과 미워함과 모든 정신 작용이 온통 한데 모이고 한데 녹고 한데 뭉쳐서 무엇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비켜 말하면 이 모든 정신 작용을 한술에 집어넣고 거기가 맑은 물을 붓고 장작불을 때어가며 그 술에 있는 것을 해해 뒤져서 온통 녹고 풀어지고 섞여서 엇과 같이, 죽과 같이 된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이때에 형식의 정신 작용은 좋게 말하면 가장 잘 조화한 것이요, 좋지 않게 말하면 가장 혼돈한 상태였었다. 얇은 구름 속에 가리워진 달빛이 산과 들로 변하여 꿈과 같이 몽롱하게 만든 모양으로 그 달빛이 형식의 마음에 비치어 그 마음을 녹이고 물들여 꿈과 같이 몽롱하게 만들어놓았다.

형식의 눈은 무엇을 보는지도 모르게 반짝반짝하고 형식의 머리는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게 흐물흐물한다. 형식의 몸은 차가 흔들리는 대

로 흔들리고 형식의 귀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대로 듣는다.

형식은 특별히 무엇을 생각하려고도 아니하고 눈과 귀는 특별히 무엇을 보고 들으려고도 아니한다. 형식의 귀에는 차의 가는 소리도 들리거나 지구의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무한히 먼 공중에서 별과 별이 마주치는 소리와 무한히 적은 에텔의 분자의 흐르는 소리도 듣는다.

메와 들에 풀과 나무가 밤 동안에 자라느라고 바삭바삭하는 소리와, 자기의 몸에 피 돌아가는 것과 그 피를 받아 즐거워하는 세포들의 소곤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그의 정신은 지금 천지가 창조되던 혼돈한 상태에 있고 또 천지가 노쇠하여서 없어지는 혼돈한 상태에 있다.

—「무정」, 117쪽

계향과 박진사의 무덤은 둘 다 가장 정결하고 순수한 것이며 동시에 신성한 그 무엇이였다. 그것에의 지향성이야말로 「무정」을 읽히게 하고 또 고전으로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다. 왜냐하면 그 힘이란 젊음의 생명력이자 지식 청년 이형식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생명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에텔’로 표상되는 이형식의 우주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와세다 대학 유학 시절에 춘원이 적을 둔 곳은 ‘문학 급 철학과文學及哲學科’였다. 그는 여기서 서양 철학을 배우고 당시 유행하던 진화론 사상에 물들어갔다. 메이지 학원에서 배운 기독교의 청교도주의는 근본부터 흔들려, 당시 일본을 방문한 타고르를 약자의 목소리라 하여 멸시하였다. 그러다 I교수(다케다武田 교수)의 불교 철학에서 인과 법칙을 배우고 II교수(확인 불능)에게 천문학을 배움으로써 그 나름의 우주관을 형성한 것이다. 특히 천문학 지식은 나중에 그를 불교로 나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지구는 결코 우주의 중심이 아닐 뿐 아니라 태양계의 한 티끌이며 그것 또한 은하계의 한 티끌에 지나지 못하고 그것 또한…… 이런 식으로 이른바 무한인 것이다. 그러면 서도 빈틈없는 인과 법칙에 의해 일초도 틀림없이 운용되는 것이 우주

이다. 후에 춘원은 이때 형성된 우주관을 이렇게 적은 바 있다.

태양에서 가장 먼 해왕성이나 플루토가 우리 지구상에 사는 생물이 살기에는 너무도 춥겠지마는, 또 그러한 자연적 조건에 맞는 생물이 살 수 없으리라고 누가 단언하겠는가. 그와 반대로, 물질 그 물건이라 하는 태양 속에도 우리 지구는 송두리째 녹아서 타서 가스가 되어버리겠지마는 또 그 조건에 맞는 생물, 즉 마음을 가진 자가 살지 못하리라고 누가 단언하겠는가. 또 다른 편으로 보아서 오늘날의 현미경으로도 한 방울 물이나 한 티끌에서 수만의 미생물이 산다고 하니 허공 중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아니 하는 잔 티끌도 수없는 생물이 부처사는 세계가 아닌가. 참새는 작고 코끼리는 크지마는 그 마음의 작용에 있어서는 꼭 같지 아니한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성나고 자라고 새끼 치고 늙고 죽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 버러지나 현미경하의 무생물이나 다 일반이 아닌가. 만일 지구의 생물만을 표준으로 다른 별 또는 허공에는 생물이 살지 못하리라 함은 마치 유대인이 하나님을 지구만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내 우주관은 친구약의 우주관을 용납할 수는 없었다.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오직 그 도덕적 가치만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러한 내 우주관이 곧 불교적 우주관(강조—인용자)이었음을 훨씬 나중에야 알았고 내가 이러한 우주관을 가지게 된 것은 천문학 시간에서 새 상상력이 지어내인 것이었다. —「그의 자서전」, 429쪽

「무정」에서의 우주관의 신성한 상상력은 평양에서 돌아오는 밤차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것은 「무정」 전편을 통해 압도적이고도 청정한 대목이며 또한 생명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주관은 기독교적 사상을 포기함으로써 획득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 청교도주의 혹은 정결 사상을 포기함으로써 쟁취된 해방감 같은 것이었

다. 누이 콤플렉스가 순수성·정결성에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에 의해, 그리고 그것을 초극하고자 하는 방식이 새로운 우주관의 상상력이기에 그것은 생명감의 넘쳐흐름인 것이다. 남의 표준, 남이 만들어준 관습에 의해 기뻐하고 슬퍼한 인생관에서 비로소 벗어나 자기 나름의 새로운 우주관을 만들어낸 것에서 유례없는 기쁨이 샘솟았다. 그러기에 누이 콤플렉스라는 정결성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그것을 초극하여 자기 나름의 청정한 우주관을 만들어내는 데서 솟아나는 기쁨은 둘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생명력, 생명의 감각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대목은 다소 성격이 다르긴 하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제9편 속에 나오는 한 장면과 구조상 흡사하다. 부친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와 변호인단 틈바구니에서 연일 시달린 장남 드미트리 카라마조프가 재판정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그는 마차를 타고 함박눈이 쏟아지는 시베리아 어느 마을에 갔다. 재앙을 당한 마을에는 부인과 어린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 울고 있었다. 왜 어머니들은 재앙을 당해 얼이 빠졌고 애기들은 울어야 하는가, 왜 모두 살이 포동포동 찢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드미트리는 반드시 그렇게 묻고 또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지금껏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감각이 마음속에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이제부터 아귀(어린애)가 더 이상 울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느 누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다. [...] 그러자 그의 심장은 불타 올라, 그 어떤 광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살고 싶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고 싶다. 그 어떤 길을 내닫고 싶다.¹²⁰⁾

이런 고양된 순간에 드미트리는 꿈에서 깨어난다. 껌작 위에 쓰러질

120) 김학수 옮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2(삼성출판사, 1975), 193쪽.

적엔 없던 베개가 그의 머리에 받쳐져 있음을 그는 발견한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에 충만되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치면서, 테이블로 다가가 무엇이든지 판사가 원하는 대로 조서에 서명하겠다고 선언한다. “여러분 나는 아주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그는 외치는 것이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가장 남성적이고, 다소 거칠기는 하나 정직한 드미트리를 통해 절망에서 솟아나는 삶의 환희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생명의 감각은 언제나 다른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이며, 그것은 늘 비전으로 존재한다.

한恨의 표정

「무정」을 「무정」이게끔 하는 네번째 구조층은 한이라 규정된다.

그것은 이 소설이 영채에게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새삼 일깨워주는 사실이기도 하다. 「무정」의 애당초 구성은 영채와 형식만을 주축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정」 전편을 통해 가장 기괴하고 불쾌하고 또 우습고 참기 어려운 대목은 영채가 두 사나이에 의해 강간당하는 대목이다. “「무정」을 읽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한국인이 아니다”라든가 “「무정」을 읽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대목에 대한 느낌에서 온다. 총 126장으로 구성된 「무정」의 제39장, 즉 이 작품의 앞 부분에 해당되는 대목에 이 기괴한 장면이 벌어져 있다.

형식의 호흡은 차차 빨라진다. 우선이가 창으로 엿보다가 고양이 모양으로 가만히 나오면서 형식의 어깨에 손을 짚고 가늘게 일본말로,

“벌써 틀렸다.”

한다.

형식은 그만 눈에 불이 번뜩하면서 “흑” 하고 뒷마루에 뛰어오르며 구두 신은 발로 영창을 힘껏 찼다. 영창은 와지끈 하고 소리를 내며 방안으

로 떨어져 들어간다. 형식은 영창을 떠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얼굴도 보지 않고 발길로 차 넘겼다. 어떤 사람이 형식의 팔을 잡는다.

형식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이놈, 배명식아!”

하고는 기가 막혀 말이 아니 나온다.

형식은 아니 잡힌 팔로 배학감의 면상을 힘껏 때리고, 아까 형식의 발길에 채여 거꾸러진 사람을 힘껏 2, 3차나 발길로 찼다. 그 사람은 저편 문을 열고 뛰어나온다.

형식은,

“이놈, 김현수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리고는 넘어져 쓰러진 영창을 들었다. 여자는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흑흑 느낀다. 손과 발은 동여매었다. 그리고 치마와 바지는 찢겼다. 머리채는 풀려 등에 깔렸고, 아랫입술에서는 빨간 피가 흐른다. 방 한편 구석에는 맥주병과 얼음 그릇이 널브러지고 어떤 것은 쓰러졌다. 형식은 얼른 치마로 몸을 가려주고 손을 동여맨 여자를 안아 일으켰다. 여자는 엎어매인 두 손으로 낯을 가리운 대로 울기만 한다. —「무정」, 75쪽

배명식과 김현수가 박영채를 겁탈하는 대목이다. “못생긴 김현수가 영채에게 떠밀치우던 양과 더 못생긴 배명식이 떠밀치고 악을 부리는 영채의 팔을 잡아주던 양과, 영채가 이를 빠드드 하고 갈던 양”(「무정」, 78쪽)이 눈에 잡힐 듯하다. 여기 나오는 배명식은 일본의 도쿄 고등사범을 나와 형식이 근무하는 경성학교 교감이자 실질적인 교장 노릇을 하는 파렴치한이고, 김현수는 경성학교 교주이며 총독부로부터 남작 칭호를 받은 친일파의 아들이다. 당대 사회의 지도적 인물이요 학생들의 사표가 될 인사들인 셈이다. 그런 두 인사가 지사의 딸 영채를 겁탈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거나 미안해하지 않는다. 배학감은 본처를 쫓고 여학생을 재취하였으나 별

써 오입질이요, 남작의 아들 김현수는 장안의 건달이다. 따지고 보면 그런 자들이 경영하는 경성학교의 교사인 이형식이 전력을 기울여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훼손된 가치의 세계인 셈이다. 이형식은 기회 있을 적마다 누이 콤플렉스에 매달리고, 그것이 생명감으로 연결되고, 우주관의 상상력을 유발시키고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던 것은,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의 세계를 무의식 속에서 추구하고 있음을 새삼 말해주는 것이다.

이 훼손된 시대에 훼손되지 않는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존재가 박진사의 딸 영채이다. 비록 그것은 구세대의 절개이긴 하나, 훼손된 가치의 시대에서는 유일하게 반짝이는 가치 기준이었다. 박진사는 어떤 인물인가. 십여 년 전 평안남도 안주읍의 어느 마을에 박진사가 살았다. 그는 선비로서 청국에 유람 갔다가 상하이에서 서적을 수입하여 신문화 운동을 시작한 선각자였다. 그는 사랑채에 젊은이를 모아 가르쳤다. 고아인 이형식도 이 사랑에서 거둬들여 배우며, 박진사를 부모로 섬겼다. 그 박진사의 딸이 영채이다. 박진사는 어린 형식과 영채를 장차 부부로 맺어주마고 말하였다. 박진사의 교육 사업은 차차 재정난으로 곤궁에 빠졌다. 혈기 있는 제자 하나가 강도짓을 하다가 체포되고, 그에 관련되었다 하여 박진사는 두 아들과 함께 감옥으로 잡혀간다. 진사 부인도 죽고 어린 이형식과 영채만 남는다. 이형식은 이 마을을 떠나고, 영채는 친척집으로 또 평양으로 떠돌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평양 감옥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어린 영채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몸을 팔아 기생이 된다. 그러나 몸값은 사기를 당했으며, 딸이 기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박진사는 감옥에서 자결하고 두 오빠도 같은 운명이 된다. 기생이 된 영채의 남은 소망은 이제 오직 하나, 부모가 정해준 약혼자 이형식을 위해 정조를 지키는 일, 그리고 이형식을 만나는 일이다. 기생이었지만 칠 년 간 절개를 지킨 영채가 형식을 찾아 서울에 온 것은 한 달 전이었다. 명문집 자제이며 기방에도 드나들며 문사로 자처하는 신문 기자 신우선을 통해 영채가 이형식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얼마 되지 않으며, 청량리의 암자 청량사에서 배학감·김현수에 의해 강간 사건이 나기 이틀 전에 영채가 이형식의 하숙집을 찾았었다. 고결한 인격자이며 민족의 선각자 박진사의 옥사, 두 오빠의 죽음은 다 분히 상징적이다. 남은 것은 오직 매음녀의 모습을 띤 딸 영채뿐이다. 그 영채가 가장 더러운 친일파의 아들과 파렴치한 교육자 배학감에 의해 강간당한 일은 사무치는 한이 될 수밖에 없다.

“김현수의 그 짐승 같은 눈, 그 곁에 서서 땀내 나는 손수건으로 영채의 입을 틀어막던 배명식의 모양, 배명식이가 영채의 두 팔을 꼭 붙들 때에 미친 듯한 김현수가 두 손으로 자기의 두 귀를 꼭 붙들고 술냄새와 구린내 나는 입을 자기의 입에 대던 모양, 이 계집을 동여맙시다’ 하고 김현수가 자기의 두 발을 붙들고 배명식이가 눈을 찡긋긋하며 자기의 두 팔목을 대님쪽으로 동여매던 모양, 그러한 뒤에 ‘이년, 이 발길년! 이제도’ 하고 김현수가 껄껄 웃던 모양”(『무정』, 80쪽)하고, 작가는 청량사의 겁탈 장면을 여러 모양으로 되풀이 상기시켜놓았다. 이 사무치는 한은 다음 두 가지 사실로 더욱 고조된다. 배학감이나 김현수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적으로 기생은 소리와 춤으로 사나이를 즐겁게 해주기로 되어 있으며, 또 겁탈한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것도 대수로운 것은 아니었다. 기생 오입이 사나이에겐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을 트집잡는다면 오히려 우스운 일이다. “형식은 당장 마주 나가서 두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뼈를 갈아 마시고 싶었다”고 했지만, 이미 훼손된 식민지 통치하의 가치관 속에서는 영채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다른 하나는 이형식의 무력함이다. 당장 나가서 “두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뼈를 갈아 마시고 싶었다”고 이형식은 생각했지만, 기껏해야 이형식이 할 수 있는 것은, 배학감을 향해서는 “여보, 배형, 이게 무슨 것이요? 교육가로 강간이란 말이 웬말이요?”이며, 김현수를 향해서는 “여보, 당신은 귀족이요! 귀족이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는 아니지요. 당신도 사오 년 간 도쿄에 유학을 하였고, 당신도 어느 회석에

서 말한 것을 기억하시오? 당신은 일생을 교육 사업에 비친다고 한 말을”(『무정』, 77쪽)이라는 것에 그친다. 속수무책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형식은 교사직에서 쫓겨난다. 형식이 그렇게 애써 가르치고 심지어 월급을 절약하여 공부시킨 제자들조차도 배학감의 농간에 놀아나 형식을 배척한다.

여기서 우리는 구세대의 가치관과 새 시대의 가치관의 보이지 않는 대립과 그 대립의 자기 모순을 똑똑히 볼 수 있다. 배학감·김현수로 대표되는 새 시대의 가치관은 물을 것도 없이 훼손된 가치관이며, 이 가치관은 식민지 통치 전기간에 걸쳐 작용한다. 육당 춘원이 그토록 주장한 문명 개화 노선도 따지고 보면 결국 이 훼손된 가치관에 흡수되고 말 운명에 처해진다. 한편 박진사로 대표되는 훼손되지 않은 가치의 세계는 영채의 겁탈이 상징하듯 새 시대의 가치관에 의해 능욕당한다. 그것은 조선조의 망국의 운명과 같다. 철저한 친일파·파렴치한 의 노선이나, 절개와 순수를 지키는 본래적 가치의 세계냐의 틈바구니에 이형식이 서 있다. 그리고 많은 이형식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한국적 시대와 상황에 「무정」이 탄생하였다. 망국 칠년째를 맞는 1917년을 전후한 시점이야말로 「무정」을 「무정」이게끔 한 시대적 가능성이다. 도쿄 유학생인 이형식은 신지식을 가르치는 일, 그리하여 한국을 일본 정도의 문명 국가로 건설케 하는 일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거룩한 사명은 제자들의 배척과 배학감·김현수의 행위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무력함이 입증되었고, 심지어 학교에서 쫓겨나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망국 칠년째를 맞는 조선 천지는 ① 배학감·김현수로 대표되는 훼손된 가치의 세계, ② 박영채로 대표되는, 능욕당한 본래적 가치의 세계, ③ 이형식으로 대표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애매한 미정형의 가치의 세계로 대별될 수 있다. ①의 계층에는 식민지 통치자와 야합한 토착 부르주아지(물론 여기엔 김장로도 포함된다)와 약삭빠른 일부 지식층이 포함되며, ②의 계층에는 대부분의 뿌리 뽑힌 선비 계층과 서민 계층

이 포함된다. 박진사가 그 선비형 지사 계층을 대표하며 그의 딸 영채가 기생이 됨으로써 가난한 서민의 동정을 살 수 있는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것이다. 문제는 ③의 계층이다. 이형식은 일본식 문명 개화를 자각의 표준으로 하여 가르치고자 돈 키호테처럼 떠돌았다. 그런 문명 개화가 끝내 ①의 세계관을 향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망국 상태가 아니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망국 상태에서는 가장 잘해야 식민지 통치자에 봉사하는 사상인 민족개량주의에 멈추고 만다. 나쁘게 말하면 ①에 봉사하는 꼴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형식이 영채의 약혼자이고 박진사가 그의 은인이듯 ②의 본래적 세계에 그 뿌리가 내려져 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그 두 세계, 훼손된 가치와 본래적 가치의 틈바구니에서 갈팡질팡 미정형 상태에 그는 서 있다.

이 세 가지 가치의 세계를 1917년의 한국적 상황에서 문제삼는 일이 「무정」을 해명하는 최종적인 거점일 것이다. 「무정」을 읽는 독자층의 대부분이 ③의 계층에 속하는 지식층 학생, 즉 사제 관계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잠재적 독자층(문자 이해득의 서민층)이 ②였을 것이다. 그리고 1917년 현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③과 ②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민지로의 경사가 깊어질수록 ③의 계층은 좁아지게 마련이다. ③의 계층은 시간이 갈수록 ①계층으로 흡수되든가 ②계층으로 흡수될 운명에 처해진다. 1917년은 ③의 계층이 그 최대의 가치 증대에 놓였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무정」의 폭발적 인기가 이를 입증한다. ③의 계층은 아직도 자기를 세우지 못하고, 미정형 상태에 있기에 오늘날 그를 있게끔 한 선각자 박진사에게 만강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지만 그것이 이미 구세대에 속한다는 사실에서 머뭇거리며, 나아가야 할 앞의 지평선은 배학감·김현수 같은 악의 무리가 섞여 있기에 선뜻 나설 수 없다. 이 망설임의 세대는 3·1운동 이후에는 다소 선명해져, 대체로 민족개량주의 노선에 모여 들게 된다.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는, 앞에서 이미 약간 암시한 바 있는 과제 중

의 하나인 정결성의 문제를 재음미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작가 춘원의 문제이자 이형식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구시대의 절개가 교육적 세계관의 으뜸 덕목이라면, 신시대의 기독교적 정결주의 역시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이다. 이 두 덕목이 작가 춘원에게 하나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음미될 만한 것이다. 병욱에 의해 여지없이 격파된 영채의 형식을 향한 절개는 기실 형식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오는 정결성의 원천이었다. 기독교를 맹렬히 공격한 춘원이지만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일으킨 개신교의 청교도적 정결성의 영향을 그는 소년 시절에 시로가네 교정에서 받았던 것이다. 이 두 윤리 감각이 이형식으로 하여금 영채의 찢어진 치마와 피 묻은 내의를 견디지 못하게 하였고, 박진사 무덤의 흙과 대동강에 시체가 되어 떠내려가는 영채의 환각에 가슴을 쥐어뜯게 했다. 그것은 구세대의 깊은 원한이자, 망국 백성의 원한이기도 했다. 정결성의 자리에서 보면 유교나 기독교는 같은 것이었다. 한 사회의 표준인 '신성한 그 무엇'이 능욕당한 것에 대한 비애·원한이야말로 「무정」이 시대적 기념비로 된 까닭이다.

작가의 자전적 요소와 「무정」의 관련성

이상에서 우리는 「무정」이 갖고 있는 문학사적 시대적 의미를 대강 살폈다. 그러나 기실 이러한 분석보다 앞서는 것이 작가의 자전적 요소와 「무정」의 관련성이다. 우리는 이 글 머리에서 「무정」이 한국 문학사에서 기념비적임은 물론 작가 개인에게 있어서도 기념비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거니와, 그것은 「무정」이 꾸며낸 이야기이기보다는 작가 자신의 이십육 년 간의 생애를 그대로 투영하였다는 뜻이다.

작가는 「무정」은 모두 허구이며, 오직 신우선만이 매일신보사 기자 심천풍沈天鳳(본명 우섭友燮, 작가 심훈의 형)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혁명가의 아내'와 모 가정', 508쪽) 이 말은 「무정」의 주인공인 이형식과 박영채가 작가 자신임을 새삼 강조하는 수사학의 일

중이다. 이형식이 작가 춘원의 직접적인 투영이라는 표현은 이념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디테일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그가 어릴 때 고아가 되었다는 것, 어린 누이 하나만 있었다는 것, 어머니가 젊었으나 아버지는 쉰 살이 넘었다는 것, 품채 좋은 조부가 있었다는 것 등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정」을 두고 기념비적이니 자전적이니 한 것은 이런 디테일의 측면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체험한 인생을 작중 인물에다 알맞게 분배하여 구상화한 그 능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무정」에서 그것은 박웅진 진사와 그 딸 영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춘원의 생애에서 전기를 이루는 맨 처음 사건은 박찬명 대령과의 만남이다.¹²¹⁾ 열한 살에 고아가 된 춘원이 동학교도 송이달에 이끌려 동학의 간부 박찬명 대령의 비서 겸 심부름꾼으로 몸을 의지한 것은 열세 살 때였다. 실제 인물인 박찬명에게 딸 예옥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그의 자서전」 속에는 딸 예옥이 있었고 그녀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다. 동학당 박찬명 대령이 일본 헌병대에 끌려갔다가 귀양가서 죽고, 예옥은 헌병 보조원에게 시집갔다가 버림받고 결국 그의 어머니와 함께 중이 되어 세상을 등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박찬명의 집에서 춘원이 구원을 받고 가족 대접을 받았다는 점은 사실일 것이요 그 딸과의 관련은 허구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박웅진 진사에 의해 고아인 이형식이 구제되어 배움에 눈떴다는 것, 그 딸 영채와 그가 약혼하였다는 것, 서로 잊지 못했다는 것 등 「무정」의 인물 설정은 춘원에겐 자전적 사실이다. 영채의 상상적 모델은 이에 멈추지 않는다. 기실 영채는 춘원이 가장 좋아하던 재당숙집의 세 사람의 종매들에 오버랩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121) 이 책 제1부 '동학당의 심부름꾼이 되다' 참조.

구름 간다 구름 간다
구름 속에 선녀 간다
선녀 적삼 안고름에
울금 대청 향을 찻다
꽃밭에서 말을 타니
말발굽에 향내난다.

—「다난한 반생의 도정」, 446쪽

종매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런 것이었다. 또 원통하게 죽은 처녀의 영혼을 달래는 장편 서사시, 가령 “자개함룡 반다지는/시택으로 돌리시오/요강대야 반상기는/부모님께 드리시오” 식의 노래가 어린 춘원의 마음에 들었다. 처녀의 유언, 유언 뒤의 장례 지낸 무덤의 처량한 광경, 죽은 혼이 남편과 부모를 그리워하는 하소연 등을 담은 노래를 어린 춘원은 베껴놓고 좋아하곤 했었다. 이것이 그의 문학 수업의 원형이었음은 물론이다.¹²²⁾ 영채가 『소학』·『열녀전』 등을 어릴 때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무정」에서 강조하고 있음은 주목된다. 영채의 상상적 모델은 이에 멈추지 않는다. 즉 세번째 모델이자 가장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서는 그가 외가에서 사귄 처녀 실단을 들 수 있다.

어디 장차
전라도 장차
어느 문으로
동대문으로

—「인생의 향기」, 242쪽

열다섯 살의 도쿄 유학생인 춘원이 귀향하여 외가에 갔을 때, 위의 놀이를 하는 처녀들 중 가장 목소리 곱고 눈이 반짝이는 처녀 실단을 알게 된다. 춘원은 실단을 잊지 못해 「그의 자서전」, 「인생의 향기」도

122) 이 책 제1부 제2장 '삼종제 이학수' 참조.

처에서 실단을 그렸으며, 도쿄의 “차디찬 하숙방에서 혼자 그를 생각 하는 것이 일면 설우면서도 일면 즐거웠다”(『인생의 향기』, 244쪽)고 회고하였다. 또 박친사의 모델의 하나로는 오산학교 교장을 역임한 애국 지사 시당 여준도 거론될 수 있다.

박영채의 모델은 이와 같이 ① 박찬명 대령의 딸 예옥, ② 삼종매三從妹들, ③ 외가 쪽 먼 일가인 실단이 등의 복합이다. 열한 살에 고아가 되어 동학당에 의해 구제되고, 배움의 길이 열려 손병희의 알선으로 도쿄 유학을 갈 수 있었고, 귀국하여 오산학교 교사 노릇을 사 년간 한 춘원의 자전적 사실은 『무정』에서 무대가 오산 아닌 서울이고, 경성학교로 바뀌었을 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영채가 겪은 기구한 운명, 가령 친척집에서 당하는 구박, 동학당의 못된 사람에게 봉육당하는 것 등 초반의 여러 일들은 다소 과장되긴 했으나 고아로 자라던 춘원이 당한 자전적인 것을 영채라는 인물 속에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정』의 남녀 주인공을 합하면 한 사람의 작자 이광수의 자전 자체가 오롯이 구성된다. 춘원이 한꺼번에 이처럼 큰 장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전적 사실을 거의 꾸밈 없이 그대로 나열한다는 생각 밑에서 집필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무정』은 쓴 것이 아니라 씌어진 것이며, 씌어진 것이 아니라 ‘말해진 것’이며, 말해진 것이 아니라 ‘흘러 나왔다’. 그러기에 그것은 그 무엇보다 작가에게 있어서는 진실이었다. 『무정』이 작가에게 있어 기념비적이란 이런 뜻에서이다. 작가에게 있어 사심 없는 진실이기에 또한 누구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실일 수 있었다. 이것이 『무정』으로 하여금 시대적 기념비로 만든 까닭이다. 왜냐하면 『무정』의 시대는 상층적 계층인 청소년에게는 순결성·정결성·생명감 자체로 인식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다. 작가 춘원이 지극히 순수하였고, 그것을 읽는 제삼의 유형에 드는 당시의 미정형의 독자층이 바로 순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육당이 『무정』의 머리에 얹어놓은 헌사는 과장이 아니라 매우 정확한 감각이었다.

누가 마음 있는 이며, 누가 느낌 있는 이며, 누가 입 있는 이노. 남보담 곱되는 설움과 아픔과 갑갑함을 가진 우리네 가운데 아무 들리는 소리의 없음이 이럴 수 없도다. 아무 뉘두리와 아무 꾸념과 아무 하소연의 없음이 이럴 수 없도다.

소리! 소리! 우리는 참소리에 주리는도다. 소리를 그리는도다. 커단 소리가 어디서든지 생겨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울러 이렇듯 쓸쓸하고 답답한 구멍이에서 건져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구멍에서는 먼지가 날 것이요, 우리의 가슴에서는 불길이 일 것이요, 우리 목숨이 나날이 시들고 마르다가 마침내 굶어 죽고 말리로다. 우리의 생각엔 살림이 그만저만 거덜나고 말리로다. 아아 소리! 네가 나를 죽이려는가.

그러나 어지신 검이 그의 끔찍한 그릇을 우리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시어 외배(춘원의 아호)란 쇠북이 우리네 사이에 있게 되도다. 그에게 갇은 소리를 지닌 줄이 있으며, 갇은 가락을 감춘 고동이 있어 고르는 대로, 트는 대로 듣고 싶은 소리가 샘솟듯 나오며, 알고 싶은 가락을 실 나꾸듯 갖게 되도다. 그의 덕에 아프면 앓는 소리, 즐거우면 웃는 소리, 갑갑한 때 부르짖음, 시원한 때 지저거림, 떠들기, 속살거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도다.

혼자매 크지 못하도다. 그러나 비인 들에 부르짖는 소리는 본디 폐지여 하는 것 아니로다. 뱃 부르는 맹꽁이 소리는 하나가 비롯하여 온 벌이 어울리는 것이로다. 그가 없었더라면 어찌하였을꼬 하고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치며, 그가 없으면 어찌 될꼬 하면 손에서 땀이 나나니, 끔찍하고 대단한 것이 그가 아니냐. 그는 참 우리의 보배로다. 나라의 꽃이로다.

이제 그가 넓적한 얼굴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동트는 기별을 울리기 비롯하였도다. 『무정』은 그 첫소리로다. 동등거리는 이 울림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움이 눈트는 기별이며, 생각의 살림이 신날 꼬는 기별이며, 오래오래 먼지 앓은 박달의 글월이 새 빛을 내며, 새 치부장을 넘김이로다. 모래밭 같은 우리 땅에는 외로워도 큰 샘터요, 무겁게 싸인 우리 귀에는 홀이라도 큰 ‘하모니’ 되려든 하물며 외배란 북은 때리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울며, 한번 울기 비롯하면 다시 그칠 줄 모름이라.

이 소리에 불려 일어나고, 이 울림에 깨우쳐 움죽거릴 구멍이 누리에 그
하합이라. 낯사람 외배와 작은 책 「무정」의 그림자가 어떻게 넓다 하라.

이로써 비로소 이 땅 이 사람의 소리가 높고 불고 가다듬어져서 마침내
하늘과 사람을 아울러 기겁게 할 줄을 믿을 때에, 누가 다시 가슴 앓는 병
어리 될까를 서러워하라. 무궁화 동산의 아름다운 꽃이 누리의 고움을 더
하는 큰 거리가 못 되겠다고 걱정하라.

울어라 줄기차게만 울어라.¹²³⁾

「무정」에 대한 몇 가지 남은 문제

「무정」에 대한 남은 문제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이 항목을 마치기로
한다.

첫째, 「무정」의 문체에 대한 것이다. 우리 근대 문장을 건설한 공적
이 육당의 신문장 건립 운동에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터이다.
육당의 이러한 실험을 본받아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춘원이다. 1925년
벽두에, 우리 문장의 발전 과정을 회상하는 일문에서 춘원은 “오늘날
우리가 소설이나 시에 사용하는 문체는 실로 14, 5년래 『소년』 잡지로
발표되어온 것이요, 소설의 신문체가 성립된 것은 불과 10년래의 일
이다. 「어린 벗에게」와 「무정」, 시는 그보다도 더 더디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이만한 자유로운 문체를 이루게 된 것
은 실로 경이할 만한 진보”¹²⁴⁾라 했다. 논설문체를 근대화한 것이 육
당의 공적이라면 소설 쪽은 단연 춘원 자기임을 위의 글이 암시하고
있는 터이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무정」을 고비로 하여 비로소 소설
에서의 근대적 문체가 이룩되매 「무정」은 다소 과도기적인 표현을 내

123) 「서문」, 『무정』(광인서관, 1918).

124) 「조선 문단의 현상과 장래」, 『이광수 전집』 10, 399쪽.

포한 것이었다.

(A) 경성학교 영어교사리형식은 오후 두시사년급 영어시간을 마치고
나려조이는 룩월벚헤 땀을흘니면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간다. 김장로의
딸선형善響이가 명년미국유학을 가기 위하여 영어를준비할차로 리형식을
매일한시간씩 가정교사로 고빙해야 오날 오후세시부터 수업을시작하게
되엿습이라.¹²⁵⁾

(B) “허허그가유명한미인이라테 자네험에 원겜되겠나마는 잘일너보게
그러면또보세” 하고 대패밥병거지를버서할할부채올하며 교동골목으로 나
려간다. 형식은이때것 그의넘어방탕함을허물하더니 오늘은도로혀 그파
탈하고 쾌할함이부러운듯하다.¹²⁶⁾

(A)는 「무정」 첫 장면이며 (B)는 첫 회의 마지막 부분이다. (A)의
강조한 부분 ‘되엿습이라’는 고대소설에서 이인직 소설에 이어진 구
식 문어체의 전형적 용법이다. 이 압도적인 문어체의 종결형은 조선조
의 의식 구조의 엄격성을 규격화하고 있다. ‘……이라’는 느릿느릿하
고 또한 우주의 법칙과 같이 절대적임을 표방한다. 그것은 저 『대명을
직해大明律直解』나 공자, 주자 등 만고 성현의 말씀의 인용과 같은 것
인 만큼 개인의 음성이나 판단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
오는 것과 같다. 이런 의식을 규칙화하고 있는 ‘……이라’에서 ‘……
이다’로 바꾸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토록 재능 있고
야망에 타올랐던 육당도 춘원도 감히 ‘……이다’ 체로 전면적으로 나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음에라. ‘……이다’ 체로의 이행은 개인의 각성
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의식하고 판별하는 기준이 개개인의 표준에 근

125) 「무정」 연재 제1회분 초두, 『매일신보』(1917. 1. 1).

126) 「무정」 제1회분 연재의 끝 부분(당시 신문 연재 1회분은 오늘날의 2회분 분량
임).

거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개성의 성장이 짝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다’체는 영영 사용 불가능하다. 「무정」의 세계는 아직도 그런 개인의 성숙 미달 상태인 것이다. ‘……이다’체로 우리 소설이 이행한 것은 김동인의 「악한 자의 슬픔」(『창조』 창간호)에서야 겨우 가능하였다. 그것도 처음엔 ‘……하였다’라는 과거형에서 비롯되었다. 김동인은 춘원의 과거형·현재형의 무자각한 혼용을 비판하기도 하였다.¹²⁷⁾ 김동인에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명민함이기보다 개인 의식의 성장이 그 무렵에야 겨우 가능했음과 일본어 문장의 영향에 의거한 것이다.

(B)의 경우 대명사 ‘그’의 사용을 문제삼을 수 있다. 「무정」에서 춘원은 대명사 ‘그’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방법이었다. 영어에서 She에 해당되는 선형을 “그가 유명한 미인이라네”라고 쓴 것이다. 메이지기 일본어도 여자 삼인칭 단수에 알맞는 대명사가 없다. 가노조彼女라는 말을 고안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춘원은 분명 「무정」에서 She에 해당되는 곳에 ‘그’라고 썼다. 따라서 김동인이 자기가 ‘그’를 처음 썼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은 약간의 착오가 아니면, 그가 「무정」을 검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경우라 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도 막연히 이 문제(여성 삼인칭 단수—인용자)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다. 삼인칭인 ‘저’라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조선말에 ‘그’라는 어휘가 어감으로건 관습으로건 도리어 근사하였다. 예수교의 성경에도 ‘그’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간간 사용하였다. 그래서 눈 꼭 감고 ‘그’라는 대명사를 써버렸다.

이때에 있어서 ‘일본’과 ‘일본글’ ‘일본말’의 존재는 꽤 큰 편리를 주었다.

127) 『김동인 전집』 6(삼중당, 1976), 20쪽.

어법이며 문장 변화며 문법 변화가 조선어와 공통되는 데가 많은 일본어는 따라서 선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 구상은 일본말로 하니 문제 안 되지만 쓰기를 조선글로 쓰자니 […]”¹²⁸⁾

김동인의 이 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한다. 하나는 여자 삼인칭 단수 ‘그’를 자기가 처음으로 “눈 꼭 감고” 썼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작품 “구상은 일본말로” 했다는 점이다. 작품 구상을 일본어로 했다는 것은 춘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어서 초창기 유학생들의 의식 구조 해명에 중요한 단서를 준다. 특히 15세 전후의 어릴 적에 유학한 육당(15세), 춘원(15세), 김동인(13세), 주요한(12세) 등의 경우가 심했을 것이다. 요컨대 「무정」의 문체상의 문제점은 일본어와 한국어의 비교에도 다소 관련을 맺는 것이며, 유학생 계층의 의식 구조와도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서 금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보인다.

둘째, 「무정」에 등장하는 철도에 대한 것이다. 춘원 소설에서 철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춘원 개인의 자전적 사실과 시대적 상황을 동시에 드러내는 중요한 측면이다. 그의 일본어로 쓴 첫 소설 「사랑인가」에서도 철도 자살 모티프가 보이거니와 이것은 「흙」(1932)의 여주인공 윤정선의 철도 자살 미수 사건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어떤 외국의 비평가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참 주제가 철도라 지적한 바 있다. 유부녀 안나가 미남 청년 장교 브론스키를 만난 곳도 철도 역이며, 죄의 대가로 그녀가 죽는 곳도 철도 역이었다. 철도는 화륜선과 함께 근대의 상징이었다. 「춘원 연구」에서 김동인은 춘원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기차상의 기연’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춘원의 소설에는 흔히 기차상의 기연(혹은 정거장)이 있다. 「흙」에도

128) 『김동인 전집』 6(삼중당, 1976), 19쪽.

누차 이런 장면이 있었고 「재생」에도 그런 곳이 있고 「어린 벗에게」도(그것은 기선이다) 그런 곳이 있고, 그 밖에도 차상의 기원이 흔히 있다. 이것은 혹은 춘원이 과거에 있어서 기차에서 기이한 일이라도 경험한 일이 있어서 자연히 소설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지?¹²⁹⁾

「무정」의 길은 철도로 되어 있다. 그것은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서울에서 평양, 진남포, 북국 한촌(오산)으로 이어지는 선적鐵의 철도 여로이며 「만세전」(1921)이 도쿄에서 서울, 서울에서 다시 도쿄로 향하는 원점회귀의 철도(기선) 여로를 다룬 것과 흡사하다. 「무정」의 주인공 박영채가 병옥을 만나 자살을 모면할 뿐 아니라 운명의 전환점이 된 것도 경의선 차중에서였고, 형식과 영채가 극적으로 만난 곳도 경부선 차중에서였다. 그러나 영채와 이형식에게 철도의 중요성은 다만 운명적 만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철도는 과거와 미래의 접점을 가르는 경계선이었던 것이다.

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설 때에 저편 킁킁한 속에 조그마한 불빛이 반짝 반짝한다. 그 불빛이 차가 달아남을 따라 깜박깜박 있다가 없다가 함은 아마 잎이 무성한 나무에 가리워짐인 듯 그 불은 꽤 오랫동안 형식의 차창에 보였다…… 저 불 밑에는 누가 앉아서 무엇을 하고.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을 잠들여놓고 혼자 일어나 지아비와 아들의 누더기를 깎는다.
—「무정」, 118쪽

이렇게 이형식은 차창에 기대어 있다. 그것은 춘원에겐 방랑의 심정이다. 고아였기에 피의 방랑성이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열세 살부터 기차를 탔고 화륜선을 탔다. 일본으로 시베리아로 수없이 기차를 탔다. 후지 산富士山이 보이는 하코네箱根 역을 수십차 방학마다 왕래한

그다. 그러기에 차창에 기대어 그의 공상은 지칠 줄을 몰랐다. 철도는 춘원을 키워낸 어머니의 젖무덤이며, 그의 상상력의 본고장이기도 하였다. 그가 배우고자 한 문명 개화의 산 물건이 철도였기에 그것을 타는 일은 단순한 여행에 그치지 않았다. 자기의 과거와 미래 속으로 요란한 기적을 우렁차게 토하며 철도가 달리는 것이었다. 춘원이 처한 시대 또한 그러하였다. 이 철도는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자들의 것이어서 통치받는 자들에게는 선망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민중들에게 철도 여행은 그 자체가 고향이라는 뿌리를 떠나는 공포의 행위였다. 특권층만이 철도를 사랑할 수 있었다. 유학생 춘원이 그런 특권층에 든다는 것은 이로 보면 자명하다. 선망과 공포의 틈바구니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철도가 작품 「무정」의 한가운데를 뚫고 흐른다는 표현은 따라서 상징적이다. 김동인의 지적처럼 기차 속의 기원은 「무정」뿐 아니라 철도가 거의 시효를 잃는 1930년대 소설까지 등장하도록 춘원에겐 대단한 것이었다.

셋째, 「무정」의 서지적 고찰에 대한 것이다. 「무정」은 6월 28일 시작되어 7월 말, 즉 약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 것으로, 1917년 1월 1일부터 이해 6월 14일까지 1백26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되었으며, 주요 인물은 이형식, 박영채, 김선형, 김병옥, 신우선 등 5명이고 춘원이 스물여섯 살 때 쓴 것이다. 춘원은 당시 와세다 대학 철학과 1학년 1학기 재학중이었다. 그는 과로하여 폐를 앓았으며, 1917년 5월 하순 귀국하였던 것이다(다른 곳에는 「무정」이 끝날 때까지 도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정」의 끝 부분은 귀국하여 쓴 것이다.

「무정」의 고료는 얼마였으며 이것을 쓸 때 그의 형편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작가 자신의 여러 발언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 잠깐 살펴두고 나갈 필요가 있다.

(A) 「무정」을 쓰던 때의 일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

129) 『김동인 전집』 6(삼중당, 1976), 91쪽.

가 몹시 고생하던 때 일이 되어 그러한 듯합니다. 그때에 나는 배고파서 정신을 잃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교과서를 못 사는 것은 둘째로 당장 수업료를 바치지 못해서 학교에도 못 가던 때가 빈번하였을 그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이 소설만은 꾸준히 완결시켰습니다. [...] 원고료를 처음엔 한 달에 5원씩 보내주더니 나중엔 10원씩 보내주더이다.¹³⁰⁾

(B) 학비라고 매달 20원씩 중앙학교에서 보내주었는데 내용은 김성수 씨가 대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늘 그때 학감이던 안재홍 씨 이름으로 오더 구만 [...] 5원씩이었으니까, 매일신보사에서 매달 주는 고료가요. 하루에 20전 폭도 못 되지요. 그러다가 처음 시험한 이 신문소설이 인기가 있던 지 「무정」을 끝내자 곧 계속해서 무얼 하나 더 쓰라고 하기에 다시 붓을 잡아 「개척자」를 쓰기 시작하였더니 그때에는 일약 20원을 주더구만. 4배 폭등이지요. —「「무정」 등 전작품을 어궤하다, 521쪽

(C) 내가 문인으로 고료도 상당히 받았다 하겠습니까. 그 중 「무정」이 가장 많이 팔리었으나 그 판권은 어떤 친구가 나의 승낙도 없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무정」과는 그야말로 무정하게 되었고 [...] ¹³¹⁾

이중 글 (A)는 다분히 과장으로 판단된다. 춘원은 제1차 유학 때도 일진회 장학금 및 학부 장학금에 의존했기에 돈 걱정은 없었고 제2차 유학 때도 김성수의 장학금으로 공부했기에 고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1907년 당시 전문 학교에 다니는 한국 유학생의 한 달 간 생활비 총액은 20원이었다. 1917년에 춘원이 김성수에게 받은 장학금이 20원이라면 교과서도 못 살 정도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B)에서 우리는 「무정」과 「개척자」 사이의 고료 격차를 알게 되며 (C)에서는 단행본

의 행방을 묻게 된다. 「무정」의 단행본은 신문관新文館에서 1917년 6월에 5호 활자(6백30면)로 나온 것이 처음이고 1918년 7월에 나온 홍문서점興文書店 및 회동서관滙東書館을 비롯, 박문서관博文書館(1935, 이곳에서만 1939년에 2판을 냄), 광영사光英社(1957), 삼중당三中堂(전집, 1962), 우신사又新社(전집, 1979) 등의 순으로 된다. 그 동안 많은 탈바꿈을 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한 서지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① 단행본을 낼 때 춘원이 손질한 경우, ② 출판사들의 오식(“오년장五年長이랍니다”를 “오십장이랍니다”로 한 것), ③ 당시의 표현을 오늘날 표기로 바꾼 것(‘부탁’을 ‘청탁’으로), ④ 문체를 변경시킨 것(‘……더라’를 ‘……했다’로), ⑤ 일본어를 우리말로 고친 것, ⑥ 당시 언어 습관을 현대식으로 바꾼 것, ⑦ 기타 특수 용어를 고친 것(‘조선인’을 ‘한국인’, ‘내지인’을 ‘일본인’, ‘지나인’을 ‘중국인’으로 한 것) 등으로 되어 있다.¹³²⁾

넷째, 「무정」에 대한 문학사적 검토이다. 「무정」에 대한 독자들의 반향을 검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사리원의 독자로부터 「무정」이 번역이나 창작이냐를 묻는 일을 위시하여 기생 애기가 소재였으니까 작가가 과연 기생집 출입이 잦았느냐를 묻는 일, 미지의 여인으로부터 팔꿈치 대는 쿠션을 선물 받은 일 등이 있었다.¹³³⁾ 「개척자」, 「신생활론」이 나왔을 때 중추원 참의 측은, 연서로 요로에 진정서를 내어 춘원을 공격하였고, 경학원에서는 춘원을 공격하는 연설회도 열렸고 여규형呂圭亨도 관립고등학교 학도에게 춘원의 글을 읽지 말라 권했었다. 「개척자」는 「무정」과 달리 관념적인 조작에 의해 씌어진 것이어서, 문체도 국한혼용체이며 자전적 곡진한 진실이 담겨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신사상의 주입이 겉으로 뻗어 드러난 졸작이었다. 「신생활론」은 조선의 기독교를 직접 공격한 논설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총

130) 「나의 최초의 저서」, 『이광수 전집』 10, 504쪽.

131) 「나의 문단 생활 30년」, 『이광수 전집』 10, 590쪽.

132) 『문학사상』 제49호(1976. 10), 366~367쪽. 김종욱金鍾旭 조사.

133) 「다난한 반생의 도정」, 『이광수 전집』 8, 453쪽; 「이광수 선생에게 문학·연애·종교를 묻는 여류 문사의 모임」, 『이광수 전집』 8, 627쪽.

독부 기관지의 위력과 「무정」의 위력에 이끌려 이 두 글에도 단연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모든 반향은 결국 「무정」의 압도적 성공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무정」에 대한 두 비판

「무정」은 발표 당시부터 대단한 기대를 안고 있었다. 일찍이 여러 단편을 썼고 또 논리로서 이름 높은 춘원이 장편을 연재한다는 예고가 있자, 국여菊如 양건식梁建植은 「춘원의 소설을 환영하노라」에서 춘원의 수완이 “비범함을 여지如知하였고, 그 험란한 채필彩筆은 인생의 반면反面을 정취 있고 심각하게 묘사했음”을 들어 금후 나타날 「무정」은 반드시 감동적일 것임을 논하고 있었다.¹³⁴⁾ 그리고 국여의 이러한 예견을 오히려 능가할 정도로 「무정」은 훌륭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작품의 성공은 아마도 작가 자신도 미처 예견치 못한 것이었으리라. 바로 이 때문에 또 이런 이유로 해서 작품이 탄생되면 그것은 시대적 힘과 언어 공동체의 공유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주요한의 「무정을 읽고」(『매일신보』, 1918. 8. 7~8. 18) 이래, 「무정」에 대해 문학사적 비판이 줄곧 가해지는 것은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 중 다음 두 가지 비판은 흥미할 만한 것이다.

첫째, 「무정」을 기점으로 하여 「개척자」를 거쳐 3·1운동 이후에도 줄기차게 전개되는 우리 근대 문학의 자유 연애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의식과의 갈등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무정」 이후 춘원을 가장 괴롭힌 것은 이 점이었다.

어떤 친구가

“소설은 무엇하러 쓰느냐. 그런 것도 조선에 도움이 되느냐.”

134) 양건식, 「춘원의 소설을 환영하노라」, 『매일신보』(1916. 12. 28).

하는 책망을 주신 데는 난면靛面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하물며,

“웬 연애 이야기를 해서 청년들을 부패케 하느냐.”

하고 특정한 질문의 투서를 받은 때에는 참으로 고소를 불금不禁하였다. 나는 음담패설을 쓰는 사람으로 모처럼 「신생활론」 기타의 논문에서 얻은 명성을 많이 잃어버렸다. —「다난한 반생의 도정」, 453쪽

이런 비판 중 매우 본격적인 것이 단재 신채호의 「낭객의 신년만필」(1925)이다. 일체의 준비론적 타협주의를 거부한 무정부주의자 단재는 식민지치하의 문화를 인정치 않았다. 그는 “다만 3·1운동 이래 가장 현저히 발달된 자는 문예 운동”이라 전개하고, 중국의 예를 들어 이렇게 공격하였다. “일반 학생들이 신문에의 마취제를 먹은 후로 혁명의 칼을 던지고 문예의 붓을 잡으며 희생 유험의 관념을 버리고 신시·신소설의 저작에 고심하여 문예의 도원桃源으로 안락국安樂國을 삼는 까닭”¹³⁵⁾을 들어 조선의 신문에 운동도 “민중 생활과 접촉이 없는 상류 사회·부귀가 남녀의 연애 사정을 그림으로 위주하는 장음문자獎淫文字는 문단의 수치”¹³⁶⁾라 주장하였다. 물론 이런 비난을 춘원 혼자 감당할 것은 아니나, 춘원에게도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대목으로서 그 단서는 「무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에는 투쟁론과 타협론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아나키즘에서 설정된 민중 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등 복잡한 문제가 개재되지만, 요컨대 단재의 비판은 식민지 전기간을 통해 도산 사상 및 춘원 사상의 비판적 거점으로 뚜렷이 버티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것이다.

둘째, 「무정」이 그 후에 전개되는 우리 근대 문학사, 특히 소설사와의 연관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무정」이 『창조』로 이어지고 나아가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거쳐 1930년대로 일관성 있게 연

135) 『단재 전집』 하(형설출판사, 1982), 33쪽.

136) 위의 책, 32쪽.

결될 수 있는 문학사적 맥락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 처음 논의한 비평가는 임화이다. 임화는 이인직에서부터 최서해崔曙海에 이르기까지 우리 근대소설의 발전적 계보를 단일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태도는 김동인이 「무정」을 두고, 내용상의 신사상(새로운 감정)과 문장상의 새로움(비록 구투를 일소치는 못했으나, “조선 구어체로서 이 만치 긴 글을 쓴 것은 조선 문학사상 특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점)을 든 것과 같다.¹³⁷⁾ 즉, 임화는 이인직의 신소설과 ‘창조’파인 김동인 등의 자연주의 계통의 소설 사이에 춘원의 「무정」을 두었는바 이는 문학의 내용과 언어적 조건을 작가의 세계관상의 진화와 나란히 하는 예술적 발전으로 보아 ‘동일 계열에서 설명’하는 문학사적 파악 방식인 것이다. 이 방식에 따라 임화는 이인직에서 최서해까지를 논의하는 마당에서 「무정」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무정」이 탄생된 1917년 무렵은 뒤늦게나마 성장하기 시작한 토착적 산업·상업적 부르주아가 자기의 본래 욕구로서의 정당한 발전을 일제에 의해 저지당하여 매우 부자연한 길을 걷고 있었고, 다른 한편 농민 및 민중은 봉건적 관계에서 역시 일제 및 상류층의 억압과 제약으로 그 욕구가 부자연스럽게 억류당한 상태였다. 이 불합리한 상태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는 현실에서, 이 현실적 과제를 해결할 계층은 민족 부르주아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토착적 민족 부르주아(신민회라든가 청년학우회 등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계층)는 십자로에 서게 된다. 즉 일제로 말미암은, 또 자체 내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자본주의(근대화)의 웅색하고 부자연한 발전의 활로를 일제에 예속되어 기생하는 데서 구할 것인가 혹은 모든 역사적 숙제를 해결할 행동선상에 진출할 것이냐의 딜레마 속에서 「무정」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무정」의 위치는 춘원이 『매일신보』에 발표한 다른 많은 논설과 같은 차원에서 「무정」을 보면 금방 알게 되는 일이다. 임화가 「무정」을 내놓

137) 『김동인 전집』 6(삼중당, 1976), 76쪽.

한 시대적 정신사적 문제를 파악하고자 장황하게 논의를 펼친 것은 그가 춘원이 이 무렵 발표한 소설들을 모조리 읽지 않았기에 추측을 넘어서는 것이 못 되지만, 「무정」의 낭만적 성격을, “왜곡된 자유의 표현”으로 파악한 점은 평가될 만한 관점이다. 왜냐하면 임화가 본 이런 「무정」의 낭만적 성격이 ‘백조’파의 낭만적 성격에 연결된다는 것, 그 백조파의 한 멤버인 박영희朴英熙가 신경향과 문학의 한 가닥을 이루는 데까지 일관성 있게 연결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무정」 속에는 주로 자유 연애, 개인의 도덕상·윤리상의 권리의 요구, 부권父權에 대한 부정 등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으로부터 벌써 명확한 것과 같이 거의 토착 부르주아의 소극적 반면反面的의 표현과 더 많이 소시민들의 정신적으로 왜곡된 자유의 표현이다.

이곳에는 자유의 전체의 자태가 아니라 그 한정된 반분, 즉 기본적인 사회적 정치적 현실성을 사상한 불구의 정신이 일면적으로 과장되어 표시되었다.

즉 당시 조선 사람이(토착 부르주아까지도) 생활적 현실 가운데서 한 개 통일적 목표로서 요구하던 자유로부터 윤리상·도덕상의 개인의 자유를 분리하여 마치 그것이 전부와 같이 과장한 그 ‘사상적 과장’이 춘원의 낭만적인 이상주의의 기초이다.

동시에 춘원의 문학에 있어 ‘전허위全虛僞’의 핵심으로서 이것은 그의 예술적 묘사의 사실성을 날카롭게 제한하였다.¹³⁸⁾

임화가 본 낭만적 이상주의는, 아직도 명확한 개념은 아니나, 현실의 경제적 사회적 법칙성과는 다분히 유리된, 주관적 감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춘원에 있어 가장 큰 약점은 현실을 주관적 관점에서

138) 임화, 「조선신문학사론서설 — 이인직으로부터 최서해까지」, 『조선중앙일보』 (1935. 10. 9, 제9회분).

파악한 점에 있다. 그 주관성은 늘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이었고 마침내 그것은 춘원으로 하여금 저 법화경 행자로 도피하는 결과를 낳는다. 춘원은 근대화란 자본주의화라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엄격한 과학 사상이라는 것을 끝내 알지 못했거나 알고자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심정적 세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과학적 세계(논리적 세계)에서 보면 그것은 극히 허위적이고 주관적인 낭만적 이상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시적인 것이기도 하다. 춘원의 「무정」이 백조파에 와서는 시적인 것으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신경향파 문학이 소설로써 백조파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반反이광수론을 동시에 진행한 것도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요컨대 춘원의 「무정」은 우리 근대 문학사에서 그 앞 단계인 이인직에, 그리고 그 뒷단계인 신경향파로 이어지는 동일한 선상에서 고찰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간에 자연주의적인 『창조』·『폐허』가 있었고, 낭만주의적인 『장미촌』·『백조』 등이 과도기적 양상으로 발효되고 있었다. 춘원이 문학사에서 맡은 바 몫은 사실상 「무정」으로 끝난 것이다. 「개척자」는 「무정」의 이삭 줍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상하이 임시 정부에서 귀국한 1921년 이후의 춘원은 작가로서의 문학사적 소임을 가지기 어려웠다. 「가실」이라든가 「허생전」 등을 쓴다는 것, 「재생」이라든가 「흙」을 쓴다는 것은 김동인의 지적대로 한갓 통속 작가임을 천하에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못한다. 더구나 관점에 따라서는 모처럼 3·1운동 이후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던 순문학 쪽에서 보면 춘원의 대중소설은 위협적 존재로 보일 수 있었다. 『동아일보』라는 대민족지에 춘원이 군림했던 것이다. 창조파의 우두머리이자, 춘원을 그 동인(제2호부터)으로 추대한 김동인은 ‘대중에 흥미 없는 문학’, 즉 순수 문학을 위해 애쓰던 조선 문단에 춘원이 상하이에 귀국하여 「허생전」, 「일설 춘향전」, 「재생」 등 대중소설을 쓰자 “이 사실 때문에 바야흐로 싹트려던 조선 신문학이 받은 타격은 막대하다”¹³⁹⁾라고 비판하였거니와, 춘원 역시 자기의 이런 소설이 대중적 흥

미에 치우쳤음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상하이에 돌아온 춘원에게는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홍사단(동우회) 운동이었다. 홍사단의 국내 총책임자가 자기라는 엄청난 프라이드와 그것의 은밀한 조직화야말로 이 야심만만한 사나이 평안도 야호선野狐禪에게는 가장 특유의 일이었다. 소설가로 행세하는 것은 한갓 겉모양의 위장 전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기에 춘원에게 문학사적 야망은 중요하지 않고 늘 이차적이거나 대단치 않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문학을 여기餘技라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중에게 보다 소박하게 인기를 얻는 일이 동우회 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만 그 의의가 인정된다고 그는 파악했는지 모른다. 그러기에 그토록 그가 믿던 도산이 체포되어 국내에 수감되었을 때 그는 견잡을 수 없는 절망에 빠졌다. 그 절망 다음에 겨우 그로부터 다시 「무명」(1939) 같은, 어느 정도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창작을 하게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도산의 죽음과, 동우회가 일망타진된 상황 속에서 춘원에게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동우회가 기소된 마당에서 대중은 의미가 없었다. 다만 마지막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문학사적으로 의의 있는 작품을 남기는 길뿐이었다. 전작소설 「사랑」(1939)이 씌어진 것도 이때이며, 「육장기」(1935), 「난제오」(1940) 등의 다소 거칠고 없는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후기의 춘원의 이러한 문자 행위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육장기」·「난제오」 계열의 소설은 따라서 독특한 소설 양식의 창조였다.¹⁴⁰⁾

139) 『김동인 전집』 6(삼중당, 1976), 58쪽.

140) 김윤식, 「이광수의 창작 방법론의 변화」, 『문학사상』(1981. 2) 참조. 특히 해방 후의 저술인 『돌베개』는 「육장기」와 이어지는 독특한 창작 행위로 볼 것이다.